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11 VOL.245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선정가능

수강기간 2025년 1월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070-4206-9140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장소	수강료
1	팡팡노래교실	24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4	즐거운 가야금교실	20명	수)10:30-12: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5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3:00-14: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10	가곡교실	20명	수) 14:30-16: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11	부채춤교실	20명	화) 17:30-19:00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12	사진아카데미(초급반)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4개월 12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2025년 3월 - 11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공연 19:00 / 전시 10:00 open

- 3. 5. (수) 국악퍼포머 청청 [UP010아 청청]
- 3. 26. (수) 춤패 배김새 [2025 을사년 춤패 배김새 새봄맞이 출판]
- 4. 9. (수) NS Band [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연! 특별한 밤]
- 4. 30. (수) 오페리움 한울 [장미꽃 가시 '카르멘']
- 6. 11. (수)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감성 더한 즐거운 음악회]
- 6.16. (월) ~ 6.22. (일) 시선회 [꿈은 이루어진다]
- 6. 25. (수) 부산아이디발레단 [Essential]
- 6. 30. (월) ~ 7. 6. (일)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 [BE CRAFT!]
- 7. 28. (월) ~ 8. 3. (일) 홍민수 도예전 [법고창신]
- 7. 30. (수) 아띠클래식 [아띠클래식 미니 콘서트]
- 8. 25. (월) ~ 8. 31. (일) 부산남사회 포토클럽 [부산 사계의 미학]
- 8. 27. (수) 극단 우릿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는 뮤지컬쇼 '전화We복']
- 9. 8. (월) ~ 9. 14. (일) 부산문인협회 [시화전]
- 9. 22. (월) ~ 9. 28. (일)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
- 9. 24. (수) 드 콤마 [배달의 콤마 '추억의 음악을 신속 배달']
- 10. 29. (수) 영포레컴퍼니 [피노키오와 함께 음악 속으로~!]
- 11. 26. (수) 이바디예술단 [문화의 교차로에 선 '술기락 정기락']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통기타운 2025 외부정모공연 010-2461-3416, 17시30분 부산예술회관 기획,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3,4층 전시장) 051)631-1377
2 부산국제예술단 제1회 부산국제예술 음악콩쿨, 010-3675-7517, 9시 부산예술회관 기획,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3,4층 전시장) 051)631-1377	3 김재익, Eclipse of Emotion 展(3층 전시장) 010-2711-8562 엘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4 김재익, Eclipse of Emotion 展(3층 전시장) 010-2711-8562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팡팡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5 김재익, Eclipse of Emotion 展(3층 전시장) 010-2711-8562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 교실 (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교장구(2층 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 연습실) 14시30분-16시	6 제63회 부산예술제 꽃예술제(3,4층 전시장) 010-2200-6127 (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야외]버스캠프남구정	7 경부울 문화연대 부산시연 010-9199-1257, 19시30분 제63회 부산예술제 꽃예술제(3,4층 전시장) 010-2200-6127	8 경성대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제11회 정기연주회 010-9287-6350, 17시 제63회 부산예술제 꽃예술제(3,4층 전시장) 010-2200-6127
9 모멘텀아트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010-2930-7325 11시, 13시, 15시 제63회 부산예술제 꽃예술제(3,4층 전시장) 010-2200-6127	10 사진작가협회 제37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3,4층 전시장) 051)631-4111 엘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11 사진작가협회 제37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3,4층 전시장) 051)631-4111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팡팡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12 문화가 있는 날-영모래 [민노키오의 함께 음악속으로-1] 051)631-1377, 19시 사진작가협회 제37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3,4층 전시장) 051)631-4111 (02) 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 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교장구(2층 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 연습실) 14시30분-16시	13 사진작가협회 제37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3,4층 전시장) 051)631-4111 (02)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14 사진작가협회 제37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3,4층 전시장) 051)631-4111	15 극단누리에 씨어터링크사업 <규중칠우> 010-4190-4979, 15시 제45회 동사회 사진전 (3,4층 전시장) 010-3593-3498
16 극단누리에 씨어터링크사업 <규중칠우> 010-4190-4979, 15시 제45회 동사회 사진전 (3,4층 전시장) 010-3593-3498	17 제45회 동사회 사진전 (3,4층 전시장) 010-3593-3498 엘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18 제45회 동사회 사진전(3,4층 전 시장) 010-3593-3498 (야간)부산미술협회 제51회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 회 회의 051)632-2400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팡팡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19 부산문인협회 제14회 국제문학제 051)632-5888, 10시 제45회 동사회 사진전(3,4층 전 시장) 010-3593-3498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 교실 (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교장구(2층 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 연습실) 14시30분-16시	20 부산문인협회 제14회 국제문학제 051)632-5888, 10시 제45회 동사회 사진전(3,4층 전시 장) 010-3593-3498 (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21 부산남구생활문화연합회 010-3977-8648, 19시 제45회 동사회 사진전 (3,4층 전시장) 010-3593-3498	22 태극엔터테인먼트 2025태극패밀리 갈라콘서트 010-2166-2468, 14시
23 태극엔터테인먼트 2025태극패밀리 갈라콘서트 010-2166-2468, 14시	24 태극부 사진전 있었음(3층 전시장) 010-4900-2436 엘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	25 태극부 사진전 있었음(3층 전시장) 010-4900-2436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팡팡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17시30분-19시	26 문화가 있는 날-이비디예술단 (문 화의 괴뢰로에 선 '속거리 짓거리') 051)631-1377, 19시 태극부 사진전 있었음(3층 전시장) 너도나도 방송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야금 교실 (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교장구(2층 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 연습실) 14시30분-16시 010-4900-2436	27 태극부 사진전 있었음(3층 전시장) 010-4900-2436 (0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사진아카데미(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	28 태극부 사진전 있었음(3층 전시장) 010-4900-2436	29 부산무용협회 새물결 춤작가전 051)632-5116, 19시30분 태극부 사진전 있었음(3층 전시장) 010-4900-2436
30 부산무용협회 새물결 춤작가전 051)632-5116, 19시30분 태극부 사진전 있었음(3층 전시장) 010-4900-2436						



ART BUSAN MONTHLY VOL.245

2025 NOVEMBER 11

CONTENTS

권두칼럼

08 공동체가 만드는 공정의 사회 _ 최광식

예서제서

- 10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드 콤마, 배달의 콤마 <추억의 음악을 신속 배달> _ 백근영
- 12 '예술의 흔적' 두 번째 이야기
- 16 제11회 부산국악축제 - 모락모락 慕樂慕樂 _ 정혜주
- 18 제63회 부산예술제 - 2025 부산건축도시사진전
- 20 제63회 부산예술제 - 부산무용예술제 _ 백근영
- 22 제63회 부산예술제 -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
- 24 2025 바다미술제
- 28 2025 부산예술회관 기획 -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 30 2025 부산예술회관 기획 - 2025 굿바이 메모리展
- 3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III - 위대한 유산 _ 박준영
- 34 토백회 창립 50주년 기념전시회
- 36 건축가의 그래픽 세 번째 이야기

포토에세이

38 자작나무숲 _ 김성숙



표지_조현영

제14회 부산젊은예술가상 수상(2021.10)
동국대학교불교문화대학원장 공로상(2021.2)
(사)대한무용협회 제19대 부산광역시지회 감사(2021-2025)
현) 조현영무용단 대표

2025 부산예술회관 기획공연 <산조예찬>



수필의 뜰

42 소금쟁이 _ 송명화

인물포커스

46 클라리네스트 차호철 _ 박준영

예인탐방

48 작가 김종택 _ 백근영

예술가열전 238

50 작곡가 최삼화 _ 정혜주

손으로 쓴 문학

54 서시(序詩) _ 안수현

들어다보기

56 영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_ 김민우

58 음악/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의

제37회 정기연주회 예술가의 생애 _ 김윤선

60 미술/ 정광화 '입고출신(出入)' _ 백근영

기획연재

62 건축과 서예Ⅶ - 범어사 원효암 무량수각

- 추사 김정희의 필획으로 되살아난 수행공간 _ 이현주

66 세상의 쉼 - "태극기가 하찮은 존재?"

대한민국 정체성 오롯이 담은 '태극기 교육' 더 절실하다" _ 심수화

70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3화 「귀국선」과 도떼기시장 _ 이용득

74 예총-전사-공연 뉴스

80 신간 안내

81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11월 통권 245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5년 10월 24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해숙(문인협회), 최창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만드는 공정의 사회

글 _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공정’과 ‘평등’은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길잡이로 거론되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울어진 저울처럼 흔들릴 때가 많다. 우리는 평등을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의 문제로 단순화하고, 공정을 경쟁의 규칙 정도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사회의 구조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 일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기 어렵고 결국 평등은 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와 파리경제대학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저서 『기울어진 평등』에서 공정과 평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시장 논리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공정과 평등은 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사회적 조건과 맥락 속에서만 온전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와 권력의 집중, 그리고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는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부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맺는 관계를 좌우하는 협상의 힘이며, 더 넓은 삶의 선택지를 열어주는 역량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사회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안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이다. 정부

역시 시장의 방관자가 아니라 조정자이자 촉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은 단순히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출발선의 조건을 함께 고민하며 협상의 힘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할 때 우리는 더 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산업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운송업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 또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물류는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자 사회의 동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운전자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와 화물 운송 사업자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화물 운송 산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율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공정과 평등이 실제로 작동하는 토대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다시 세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화물운송 시장은 국제 유가, 물가, 차량 유지비, 보험료, 인건비 등 수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연합회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장 안정화와 사업 지원의 역할을 맡아 왔다. 최근에는 'KTA 화물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송사와 차주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화 또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화물복지재단에서는 화물운전자 가족들에 대한 장학사업, 유가족 생계 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안전 물품 제공, 전용 휴게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복지 사업을 펼치며 운전자와 그 가족의 삶을 보듬고 있다.

이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체적 책임으로 풀어내는 하나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산업과 사회가 공동체적 책임과 상생의 원칙 위에서 운영될 때, 문화와 예술 또한 그 역할을 통해 공감과 연대를 확장할 수 있다. 예술은 사회의 가장 민감한 감각으로서 불평등을 포착하고, 대중들에게 표현하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무용수의 몸짓, 화가의 붓끝, 연극 무대의 목소리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공감과 성찰의 장을 마련한다. 제도과 숫자의 언어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평등의 가치를, 예술은 감정과 공감의 언어로 풀어내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지역 국악 축제나 전통 공연이 세대와 계층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듯, 예술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 치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과 삶의 현실을 담아낸 공연은 개인과 사회, 공정과 평등, 존엄의 문제를 다시금 성찰하게 한다.

공동체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산업 현장의 연대,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과 문화, 삶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사회는 비로소 더 풍요로워진다. 사회적 논의와 예술적 표현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정부·산업·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지점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기울어진 평등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국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드 콤마, 배달의 콤마 〈추억의 음악을 신속 배달〉

2025. 9. 24.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인 9월 24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드 콤마] 배달의 콤마 〈추억의 음악을 신속 배달〉이 열렸다. 클래식 음악은 대중들에게 아직은 다가가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다. 이에 본 공연에서는 클래식을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접하게 하고자, 귀에 익숙한 영화음악과 대중가요 등을 레퍼토리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현악 앙상블, 국악, 드럼, 오보에를 활용한 음악의 다채로운 구성은 고전부터 현대 음악을 아우르며 청중들에게는 새로운 감동과 공감을 끌어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무대 위의 고요함이 객석까지 번졌다. 연주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일순간 짧은 박수가 터지고 이내 홀 안에는 악기의 조율 소리가 맴돈다. 정적 속 첫 음이 흐르고, 이제 공간 속 관객과 연주자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됐다. 오프닝은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5중주 D장조 Op.51 1악장」(Piano Quintet in D Major Op.51 1st mov.)이 시작됐다. 담백하며 선이 굵은 코드의 피아노로 시작된 연주는 이어지는 바이올린과 첼로 등 악기가 주는 현의 음률이 없어지면서 피아노와 4중주 사이에 대화하는 듯 여러 가지 음역과 앙상블을 만들어 냈다. 아렌스키 특유의 서정성과 강렬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지만, 깊은 감정이 곁을 따라 흘렀다. 피아노는 때론 배경이 되고 때론 주도적 역할을 하며, 바이올린과 첼로와 감정을 조율했다. 이들은 작은 호흡 하나까지 의미가 되는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음악을 전달했다. 조용하지만 깊게, 절제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마치 편지를 천천히 읽어나가는 기분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감성을 잘 드러냈다.

첫 공연 이후 이어진 두 번째 무대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겨울 중 2악장」(Le Quattro Stagioni 겨울 중 2악장)이 펼쳐졌다. 이 곡은 현악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으로, 차분하고 서정적인 선율에 눈이 내리는 고요한 풍경을 묘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시작부에 삽입되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느린 템포'로 첼로와 바이올린이 주고받는 '대화 형식'이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 고요함과 사색적인 분위기로 이끈다. 이어서 펼쳐진 독주로 진행된 요한 파헬벨의 「캐논」(Canon)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멜로디가 다른 성부에서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모방 대위법¹⁾ 형식을 취한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 요한 파헬벨 Johann Pachelbel이 3대의 바이올린과 베이스를 위해 쓴 곡으로, 1968년 장 프랑수아 파야르가 이끄는 실내악단에 의해

녹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후 영화·드라마·광고 등에도 삽입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고요하면서도 밝은 느낌의 성격을 지닌 이 곡은 현대 음악에 수많은 영향을 주며, 편곡과 연주곡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무대들은 국내외로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영화·드라마 OST를 선보이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국악의 소리꾼이 부른 「배 띄어라」에서는 “배 띄어라”는 노랫가락에 맞춰 관객은 “얼썩”라고 추임새를 넣으며 감정적 교류와 힘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마지막 무대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항구의 봄」(The Four Seasons of Buenos Aires Primavera Portena)으로, 이 곡에서 피아졸라는 탱고 음악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이를 현대 클래식, 재즈, 그리고 실험적인 음악 요소를 융합하여 ‘탱고 누에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본 곡은 ‘봄’의 이미지에 맞는 밝고 활기찬 리듬과 생명력 넘치는 도시의 봄을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연주에서는 바이올린 현의 굵은 소리와 현대 음악의 특징인 복잡한 기교, 비화성음(불협화음), 불규칙적 리듬감을 활용하여 곡의 입체성과 동시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공연은 큰 호흡 속에 제멋처럼 추역의 음악을 관객들의 마음속에 신속 배달하며 마무리됐다. 드 콤파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공연들은 나아가 기성 클래식 무대의 점진적 변화 촉진과 대중들에게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글_백근영

¹ 한 선율을 만든 뒤, 다른 성부에서 동일한 선율을 약간의 시간적, 음정적 차이를 두고 따라 하는 대위법의 한 기법이다. 즉, 음악에서 여러 선율이 마치 따라 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들리도록 작곡하는 방식이다.

예술의 흔적



강대화_건축

-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 건축사사무소 토탈 대표 건축사(1995년 개업)
-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이사
-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회장 역임

건축사사무소 토탈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일본 동경에서 실무
를 하다가 부산에 정착했다. 부산시에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재생과 장수명건축에 관

심을 두고 작업을 한다.

건축은 수많은 조건을 변수로 두고 작업하는 장르이다. AI같은 첨단 기술들로부터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 또는 협업자의 역할일 뿐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홉과 같은 호기심과 한계를 체험하는, 즉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기술로 대체될 수 없다. 현재 건축은 도시나 마을, 기후변화 등과 같은 공공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연 건축가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고 의무이다.

우리는 늘 현실과 부딪힌다. 항상 백지와 같은 순수한 자세로 임하여 진정성 있는 건축을 해야 한다. 특히 건축 분야는 경제 환경과 밀접하므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술의 흔적’ 두 번째 이야기

부산 예술을 이끌어 온 원로예술가들을 기리는 자리인 ‘예술의 흔적’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지난 9월 15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원로예술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부산 예술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예술의 흔적’은 부산예총 산하 9개 협회 원로예술가 17인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기록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각 장르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 후학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부산 예술의 어제와 오늘이 녹아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기록으로 남아 미래를 향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11월호에서는 건축·국악·무용 분야 원로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기록_정리_편집실



장상진_건축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학·석사)
- 육군공병장교(ROTC, 중위) 만기 제대
-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회장 역임
-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동신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1972년 개업)

건축물은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 관리, 해체, 폐기 까지 약 4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사회·문화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건축가에게 책임을 묻는다. 아름다

움을 창조하고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기술과 예술은 ‘재주術’라는 어휘를 바탕으로 한다. ‘術’은 사물이나 형상을 다루는 방법과 도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있다. 기술과 예술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바람직한 발전을 이루었다.

건축은 공간을 창조하고, 문학은 공간을 배경으로 하며, 건축은 응결된 음악이고, 음악은 보이지 않는 건축이라는 말이 있다. 현대 건축은 기술과 매체의 빠른 발전으로 타 장르의 특성을 흡수 확대해 가고 있다. 예술가들은 독립적·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역량을 추월할 것 같다. 그렇기에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AI를 현명한 도구로 활용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김하정_국악

제31회 부산동래차밭골문화예술상 대상
제24회 다촌정산구차문화교육상

우리 전통의 국악, 장구, 무용 등을 배우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악 중에서 선소리산타령을 배우고 있다.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 예술에 담긴 혼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기술은 빠르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가치는 우리 문화에 대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

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믿는다.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시대의 흐름과 감각에 맞게 창조적인 시도로 새로운 고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예술이야말로 세계와 소통하는 진정한 길이다.

예술의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높이 뻗어갈 수 있다.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뿌리인 전통을 토대로, 세계로 나갔으면 한다. 우리 것을 사랑하고 알리는 길을 걸어가는 예술가들을 믿고 진심으로 응원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대에 예술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응력과 개방성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에는 예술 창작과 예술적 표현의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예를 들어 AI를 협력자로 생각하면서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예술문화공연이나 예술단체들과 협력을 체결해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 중이다. NFT나 디지털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활동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의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를 함께 결합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고 예술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창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지식을 넓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김명숙_국악

- ▶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사
- ▶ 국가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 ▶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수석부회장
-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금정지부장
- ▶ 김명숙판소리연구소 원장
- ▶ (주)한국예술연구진흥원 부산지회장
- ▶ (주)전국연합방송 대상(판소리 부문)
- ▶ 전국국악대전 종합대상
- ▶ 한국문화예술 대상(판소리 부문)



하인철_국악

- ▶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 ▶ 제22회 상주전국민요경향대회 명창부 대상(대통령상)
- ▶ <하인철의 국악의 향기> 외 다수 공연

부산에서 40년 넘게 경기민요와 서도소리를 전하고 있다. 전통만을 고집해 이어왔다. AI와 NFT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전통과 뿌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활용하는 방법들이 긍정적이다.

예전에 비해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창작 활동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전통 예술은 기술이 아닌 역사와 삶의 정신까지 전달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후배들이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 예술의 울림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응원한다.



엄옥자_무용

- ▶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무형문화유산 강좌 주임교수
- ▶ '원향지무' '원향갈춤' '원향살풀이춤' 포드 극장
- ▶ 2000년 한일주민 친선 이벤트 외 다수 공연
- ▶ 제48회 부산시문화상(공연예술 부문, 2005년) 수상
- ▶ 제4회 PSB문화대상(공연예술 부문) 수상
- ▶ 대통령 표창장(2000년) 외 다수 수상

국가무형유산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이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초대 예술감독을 지냈고, 약 20년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문

화유산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까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AI를 즐겨서 사용하고 있다. 기술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고, 기술은 도구일 뿐 예술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의 감정과 소통이라 생각한다. AI가 예술가의 고유한 시선과 감성은 대체할 수 없다. 전통춤은 그 원형을 가지고 현대적 해석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전승을 넘어 전통춤의 예술성과 학문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창조적 개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정순남 선생의 통영교방진춤의 복원과 재조명을 진행 중이다. 학술 행사와 공연에서는 춤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실현을 통해 예술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전통춤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형을 지키되 살아 숨 쉬는 예술로서 바르게 나아가길 바란다. 춤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



좋은 바람과 놀고 가야금병창

전통을 품고, 새로이 피어오르는 부산 국악

제11회 부산국악축제
모락모락慕樂慕樂

2025. 9. 14.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새로이 피어오르다. 땅을 울리는 소리 <지신>

어릴 적 동네에 잔치가 열리면 빠지지 않던 풍경이 있었다. 알록달록 오색띠를 두른 풍물패가 마을을 돌고, 팽과리 소리는 하늘까지 울려 퍼졌던 장면이다. 그것은 특별하다기보다는 일상처럼 익숙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소고를 배우고, 가을 운동회 날이면 풍물놀이가 운동장에 등장해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흥을 더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장면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지금은 공연장이나 특정 행사에 가야만 겨우 마주할 수 있는 '이색적인'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속도만을 좇던 시대 속에서 전통음악은 자리를 잃고, 서랍 속에 묵혀둔 앨범처럼 추억 속으로 밀려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그런 낯선 소리에 세계인들이 매료되고 있다. 국악 특유의 독창적인 울림과 신선한 매력에 오히려 그들의 귀를 사로잡는 것이다.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된 무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의 흐름은 국악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고 있다. 이제 국악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특권이자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부산국악협회(회장 강명옥)는 부산 국악의 맥을 잇고 전통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부산국악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악을 단순히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고유한 음악적 정체성과 미학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창조적 자원으로 제시했다.

프로그램은 '좋은 바람과 놀고' '좋은 햇빛과 놀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새로이 피어오르다' 총 네 개의 장으로 꾸며져, 공연 주제인 <모락모락 慕樂慕樂>에 걸맞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부산국악축제의 매력은 무대를 가득 채운 출연진의 규모에서도 드러났다. 모든 무대가 단체 공연으로 꾸며져 화려했고, 각 장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다. 중간중간 어린이 출연진도 모습을 드러내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감각을 일깨워 흐뭇함을 더했다. 다만 전 무대가 여러 출연진의 합창으로 연결되다 보니 형식이 다소 단조롭게 느껴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공연은 가야금병창 「범벽타령」과 「풍년노래」로 시작됐다. 이어 평탄하고 서정적인 선율 위에 경쾌한 분위기를 띤 경기민요가 울려 퍼졌다. 「경기앞산타령·뒷산타령·자진산타령」으로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맑은 산수화처럼 정겨운 풍경이, 신명 나는 장단에 흥이 차오르는 풍경으로 펼쳐졌고, 곧이어 남창지름시조 「푸른 산중 백발옹이」가 등장해 풍년을 기원하고 인간 세상의 이상향을 노래했다. 여러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흥으로 삶을 달래온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감정이 고스란히 다가왔다.

부산시 무형유산인 부산농악의 전통 가락을 재구성한 앞은반 사물놀이는 악기 간 긴밀한 주고받음과 점차 고조되는 역동성이 돋보이며, 흥과 에너지가 절정에 이르러 단연 인상적인 무대를 만들었다. 이어 서도민요 「신경발람·병신난봉가·연평도난봉가·사설난봉가」와 남도민요 「금강산타령·신뎃놀이·동해바다」가 이어지자, 관객들은 친숙한 가락에 맞춰 흥얼거리며 어깨를 들썩였다. 진도북춤과 소고놀이는 강렬한 북장단과 유연한 춤사위의 호흡을 맞추며 화려하고 조

화로운 몸짓을 완성했다.

땅을 울리는 소리 <지신> 무대에서는 부산시 무형유산인 수영지신밟기가 펼쳐졌다. 보유자 김병립을 중심으로 담백하면서도 깊은 소리가 무대를 이끌었다. 공연 내내 무대를 지탱한 부산국악협회 국악관현악단(지휘 김경수)은 마지막 무대에서 전통악기의 조화를 이루며 대취타의 선율을 힘차게 풀어냈다. 특히 젊은 연주자들이 다수 참여한 활기찬 무대는 부산 국악의 미래를 밝히는 듯해,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빛이 바래 한켠으로 밀려났던 국악은 이제 현세대의 새로운 열망 속에서 창조적 전통음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통은 단순한 계승을 넘어 확산과 창조로 나아가며, 월드 뮤직으로의 도약, 곧 국악의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부산국악협회가 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국악 전문 단체로, 한국음악을 전공한 졸업생은 물론 오랜 세월 전통 방식으로 수련해 온 이들과 함께하며 단단한 뿌리를 이루고 있다. 덕분에 부산국악축제는 지역 고유의 토속성과 민속적 정서를 생생히 담아내며, 잊히지 않고 이어져야 할 전통의 무게를 무대 위에 고스란히 펼쳐 보였다. 60년 넘게 부산국악을 굳건히 지켜오고, 이어오고, 넓혀온 부산국악협회가 전 세계를 들썩이는 중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글_정혜주



제63회 부산예술제 2025 부산건축도시사진전 보통의 연결 : 붉은 실 이야기

2025. 10. 15. ~ 19.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도시는 거대한 건축물과 화려한 스카이라인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때로는 폐교 운동장의 고즈넉한 풍경이, 오래된 골목길의 벽돌이, 혹은 작은 서점과 시장 풍경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삶을 지탱한다. '보통의 연결 : 붉은 실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2025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은 건축과 도시 속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상의 풍경과 연대의 흔적을 사진예술로 담아냈다.

부산건축가회(회장 김두진)가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됐다.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공모에는 국내의 사진 애호가들이 다수 출품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운영위원장 김주열을 비롯해 조정훈, 안재철, 이지현, 정은주 등이 1차 심사를 맡았고, 본심은 강종관(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과 이봉두, 이인미가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다.



1등_장지성_세월

올해 1등상은 장지성의 「세월」에게 돌아갔다. 작품은 낡은 벽돌 건물의 굴뚝과 외벽, 그리고 그 뒤로 솟아오른 신축 고층 건물을 한 프레임 안에 담아냈다. 오래된 벽돌은 벗겨진 페인트와 희미한 글씨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그 배경을 채운 건물은 매끈한 회색빛 표면과 규칙적인 창문 배열로 현대 도시의 건축물을 상징한다. 두 건축물의 대비로 말 그대로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냈다. 심사위원장 강종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한 느낌과 도시·시간·기억에 대한 은유적 탐구가 돋보인다”고 평했다.

2등상은 두 점이 선정됐다. 반미태의 「시간의 추억 2(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대표적 풍경인 감천문화마을의 다채로운 골목과 집들을 담아냈다. 알록달록한 색감 속에 스며든 삶의 온기가 잔잔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골목길 사이로 쌓인 시간의 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며, 오래된 공간이 품은 사람의 흔적을 따

뜻하게 비춘다. 정동준의 「옛 집의 앞마당」은 낡은 나선형 철제 계단에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를 정제된 시선으로 포착했다. 녹이 슨 구조물은 마치 시간의 층위를 품은 듯하며, 얇디얇은 쇠살 하나에도 꽃꽂이 버터온 강인함이 스며 있다.

3등상은 서영주의 「흐름, 이어진 것들」과 장상진의 「평화공원」, 최승민의 「밤의 시장」이 차지했다. 서영주의 작품은 대형물의 에스컬레이터와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건축 구조와 인간의 동선이 만들어내는 '연결의 흐름'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장상진의 「평화공원」은 유엔평화공원의 고요한 풍경과 그 뒤편에서 새로이 세워지는 건축물의 대비를 통해, '역사를 품은 공간 속 새로운 시작'이라는 상징적 장면을 포착했다. 최승민의 「밤의 시장」은 자갈치 시장의 야경을 공중 시점으로 담아내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공동체적 연대와 장소의 지속성을 재조명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본 시선은 또 다른 이야기로 다가온다.

이번 사진전은 단순히 우수작을 가리는 자리를 넘어, 건축과 도시 공간이 어떻게 사람과 문화를 잇는지 되물게 했다. 시장과 골목, 공원처럼 소박한 생활 공간에서 포착된 장면들은 화려한 스카이라인



2등_정동준_옛 집의 앞마당

뒤에 숨은 '보통의 건축이 사람과 사람, 공간과 일상을 견고하게 이어온 방식들을 섬세하게 증언한다. 수많은 출품작의 시선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인다. 도시는 건축의 집합체가 아니라, 기억과 관계가 촘촘히 얽혀 살아 움직이는 무대라는 사실이다.

「2025 부산건축도시사진전」은 익숙한 풍경 속에서 보물을 찾는 경험을 선사했다. 건축과 사진이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일상의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도시와 사람, 그리고 예술을 잇는 '붉은 실'의 의미를 다시 확인했다. 그 실은 오늘도 보통의 삶을 따라 조용히 이어지고, 내일의 도시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문의_051)241-4011 / 편집실



2등_반미태_시간의 추억 2(감천문화마을)

‘몸으로 말하는 시대의 감성’ 제63회 부산예술제 부산무용예술제

2025. 10. 12.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 시민의 날’을 경축하며 시민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행사의 장으로 펼쳐지는 문화축제인, 제63회 부산무용예술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본 공연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세 가지 무용 장르와 함께 한국 전통과 현대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색채와 메시지를 통해 시대 언어의 전달과 우리 사회 속 공감의 가치를 나누고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건전한 부산무용의 활성화와 예술성을 고취하고, 인류의 삶에 기반한 섬세한 몸짓과 감정의 다채로운 발디딤의 울동이 관객에게 강렬한 여운을 전했다.

연중행사에서도 큰 의미를 담고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무용예술제인 만큼 공연장은 각계 많은 관객으로 북볳다. 사회자의 공연 소개로 진행된 무대는 격조 있고 장중한 느낌의 조선시대 왕의 우렁찬 독백을 시작으로, 나라의 평안과 재액을 물리고 태평성대를 기원을 뜻하는 춤 <민안하니 태평이로다!>(강선영류 태평무)가 시작됐다.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듯, [유은주 참춤 무용단]의 축원무는 이어지는 왕과 왕비를 비롯한 궁녀들의 복식과 과거 궁궐의 배경이 한데 어울려지며, 웅장하고 유려함이 느



껴졌다. 손끝으로 표현된 절제적이고 화려한 팔사위와 발디딤은 연희적 의미의 흥과 멋을 조화롭게 이루며, 여러 가락과 추임새에 맞게 제의적 형태들로 구현됐다. 느낌에서 시작하여 빠른 장단과 흐름으로 표현된 춤의 전개는 안무에 긴장과 고조를 더 했다.

다음 무대는 현대무용으로 '2024 새물결춤작가전'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현대무용단 자유]의 <본연>이 이어졌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 속 인간의 복잡한 성격과 감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을 극적으로 연출했다. 무대 위 여러 군상을 대표한 무용수들은 다양한 동작과 표현을 통해 여러 자아를 투영시키고, 변화 및 발전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표현했다. 파란 하이라이트 조명을 통해 감정을 지닌 인물들이 고뇌에 찬 듯 멈춰있고, 이내 무엇인가를 갈망하듯 흩어지고 모인다.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사방에서 쏟아지듯 바다의 파동과 물결과 같이 움직이고, 공연이 마칠 때까지 변화의 과정을 긴장감 있게 가져가며 서사적으로 풀어냈다.

망자를 위한 무속례인 씻김굿(동해안 오구굿)중 하나인 [김진홍전통춤보존회]의 <지전춤(김진홍류)>이 연이어 공연을 선보였다. 창호지를 길게 오려 총채처럼 만든 것을 양손 또는 한 손으로 들고 망자의 넋을 깨끗이 씻어주어 부정을 가시고 원과 한을 풀어주어 극락으로 보내는 춤이다. 이는 동해안별신굿 5대 세습무인 김석출 선생의 동생 김계향 선생의 지도로 1979년 제1회 대한민국무용제 등 많은 공연에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춤이다. 춤동작에서는 나란히 또는 원형의 군무 형태로 응축된 힘을 발산하고 격렬한 씻김 행태에 다소 무겁고 적막한 느낌이지만, 우아함을 놓치지 않게 표현됐다.

[부산유니온발레단의 <별빛왈츠>는 이전의 분위기를 단숨에 반전시키는 화려한 발레 공연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아름다운 무도회 형식으로 펼쳐진 이 무대는, 한 쌍의 무용수와 군무 무용수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밤의 축제장을 찬란하게 수놓았다. 두

옛은 사랑과 교감을, 군무는 화합과 축제를 상징하며, 부드러운 왈츠 스텝과 공간을 넓게 활용한 무대 구성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조화를 통해 관객들을 환상의 무도회로 이끌었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김경미무용단]의 <남도소고춤(김평호류)>은 앞선 공연의 여운을 흥겹게 이어받아, 관객의 흥을 더욱 북돋우는 무대를 선사했다.남도 특유의 멋과 흥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전통 농악이 지닌 보편적 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매력으로 풀어냈다. 특히 북의 추임새와 함께 펼쳐지는 다양한 가(歌)·락(樂)·무(舞)의 일체감은 극치에 달했고, 구간별 구성된 농악 동작과 춤사위는 생동감 넘치게 전개되어, 한국 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靜)·중(中)·동(動)'의 조화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전통의 깊이와 무용수들의 섬세한 표현력이 어우러지며, 한국 춤의 정수를 체감할 수 있는 인상적인 무대였다.

마지막 무대로 [손영일무용단]의 <구린 예술가>는 예술가들의 무대 위 화려함과 그 이면의 공허함을 동시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진정한 예술의 본질과 우리 시대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관객에게 강렬하게 질문하는 작품이었다. 독백 형식의 내레이션과 함께 시작된 독무는 역동적이고 고뇌에 찬 안무, 그리고 음향과의 조화를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했다. 이어 무용수들이 합류하며 확장된 울동은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며,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콘셉트를 '춤'이라는 매개를 통해 입체적으로 시각화했다. 공연이 막을 내리고 진행된 오픈콜에서는 무용수들의 인사에 이어 「벧놀이」가 울려 퍼졌고, 객석의 관객들과 함께 참여하는 즉흥 합동무대로 인하여 하나의 축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글 백근영

- 1 유은주 참춤 무용단_민안하니 태평이로다(강선영류 태평무)
- 2 현대무용단 자유_본연(2024 새물결춤작가전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 3 김진홍전통춤보존회_지전춤(김진홍류)
- 4 부산유니온발레단_별빛왈츠
- 5 김경미무용단_남도소고춤(김평호류)
- 6 손영일무용단_구린 예술가



한해의 시선을 모아 빛은 사진의 향연

제63회 부산예술제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

2025. 11. 4. ~ 7. 부산광역시청 제1·2·3전시실

가을빛이 깊어지는 11월, 부산의 사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결실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가 제63회 부산예술제의 일환으로 준비한 이번 회원전은 소속 407명의 회원이 지난 1년 동안 다져온 창작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다. 다양한 공간과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채우며, 공감과 소통의 장을 펼쳐낸다.

이번 전시는 기록을 넘어 예술로 확장되는 사진의 힘을 보여준다. 생활의 한순간을 포착한 작품에서부터 인간과 자연의 관계, 도시의 풍경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 작품까지, 다양한 시선이 어우러져 부산 사진예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드러낸다. 사진가들의 렌즈는 찰나를 붙잡으면서도 그 이면에 흐르는 삶의 깊이와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부산시청 제1·2·3전시실을 가득 채우는 이번 회원전은 단순한 작품 나열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감각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교류의 장이다. 회원 상호 간의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부산 사진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와 더불어 회원 작품집 발간, 우수작품상 시상도 예정되어 있어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견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십결상'과 '우수작품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우수작품상에 오른 유미경의 「대금연주」는 장인의 깊은 호흡이 깃든 순간을 담아내며, 사진 속에서 대금의 울림이 실제로 흘러나올 듯한 생동감을 전한다. 장부봉의 「작업」은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색으로 공간을 채워가는 장면을 통해 노동의 순간을 회화적으로 포착했다. 초록, 빨강, 노랑으로 물든 세 개의 창은 동일한 형태 속에서도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흥미로운 대비를 만든다. 허승도의 「혼신의 힘」은 물고기를 삼키려는 새와 저항하는 물고기의 순간을 포착해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보여

주며, 수면 위로 번진 파동은 생명의 치열한 몸부림을 더욱 생생히 전달한다.


십결상에 선정된 작품들 역시 각기 다른 시선과 주제를 통해 사진예술의 깊이를 보여준다. 강영대의 「기도」는 수행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요히 담아냈고, 권오원의 「염전작업」은 노동의 현장에서 묻어나는 공동체의 땀과 자연의 청아한 아름다움을 함께 포착했다. 김지민의 「폴댄스」는 힘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몸짓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백종기의 「무지개마을의 현실」은 일상 속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마을 풍경을 하늘 위 시선으로 담아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명숙의 「소녀의 시선」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두 소녀의 눈빛을 통해 시선이 닿은 너머에 대한 호기심을 남긴다. 제종모의 「기원」은 물속에 잠긴 수많은 동전 속에 갇든 사람들의 바람을 섬세하게 포착했고, 하병철의 「행복한 순간」은 이어폰 너머 음악을 즐기는 인물의 표정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생생히 전한다.

제63회 부산예술제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회원전’은 단순히 사진을 감상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해 동안 쌓인 시선과 경험, 사유와 감정이 모여 빚어낸 공동체적 예술이자, 지역 사진예술이 걸어온 길을 다시 확인하는 발걸음이다. 407명의 작가가 남긴 흔적은 다음 세대의 작가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선물할 것이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1 이명숙_소녀의 시선 2 백종기_무지개마을의 현실
3 장부룡_작업 4 유미경_대금연주





바다로 흐르는
도시의 예술
2025
바다미술제

2025. 9. 27. ~ 11. 2.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가라앉은 서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지닌다. 2025바다미술제는 이러한 예술의 본질을 ‘밑 물결(undercurrents)’이라는 주제로 풀어낸다. 바다의 표면에 머물던 익숙한 시선을 넘어, 그 아래 겹겹이 숨겨진 다각적이고 혼종적인 풍경들을 드러내며 바다와 도시, 그리고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장을 마련했다.

9월 26일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과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최장락 부산미술협회 회장, 이준 집행위원장, 전시감독 김금화와 베르나 피나 등 부산과 세계를 대표하는 예술인 및 부산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축제의 시작을 빛냈다. 바다와 모래, 바람이 하나 되는 현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그 자체로 예술제의 성대한 시작이었다.



1 최원교_아름, 아크릴, PVC, 아연도금 사각 파이프, PVC에 인쇄, 240×250×250cm, 2025

2 비론 에를 베르트_안개 클럽, 철재 비계, 섬유 인쇄, LED 조명, 안개 분사, 혼합재료, 60분 루프, 2025

3 마르코 바로티_표류하는 소리, 세라믹, 탄산칼슘, 태양광 패널, 사운드 드라이버, 24분 56초, 가변크기, 2025. ©마르코 바로티

여섯 구역으로 펼쳐진 전시

전시장은 A구역부터 F구역까지 여섯 개의 큰 공간으로 나뉜다. 각 구역은 다대포라는 장소가 지닌 상징성과 역사, 그리고 예술가들의 시선을 더해 다채로운 매력으로 꾸며졌다.

A구역은 다대포해수욕장역 주변으로, 항구 도시 다대포의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 이진 작가의 「물결의 되올림」은 조수와 바람이라는 자연의 힘을 시각화하며, 수백 년 전 다대포 해안에 일렁이던 파도의 리듬을 오늘날 관객 앞에 되살려낸다. 작품은 자연의 미묘한 힘을 눈앞에 펼쳐 보이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시간의 흔적을 깨닫게 한다.

B구역은 다대포 서측과 해변공원 일원이다. 이곳은 담수와 해수가 뒤섞이며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지만, 동시에 낙동강 하굿둑과 항만 개발, 매립 위기로 수차례 훼손 위기에 놓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켜낸 공간에 예술이 자리하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안체 마에브스키의 「진화하는 페인팅」은 고생물학자와 대화를 바탕으로 관객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해 협업 드로잉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다. 가장 오래된 생명체에서 시작된 진화의 흐름은 드로잉을 통해 다시 재현된다. 세바 칼푸케오의 「콜요프 시리즈」는 부산의 바다를 탐구한 뒤 칠레에서 제작한 사진 퍼포먼스 시리즈다. 작품은 바다와 강 위에 띄워져 관람객에게 마치 새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플라스틱 판타스틱의 「폴리미터」는 합성 물질과 다
시마라는 상반된 재료를 대비시켜 쉽게 공존하지 못하는
생태적 리듬을 드러낸다. 외피의 인위적 재료와 내피의 자
연 친화적 재료는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불균형을 날카
롭게 드러낸다.

안나 안데렉의 「실버 북」은 지역의 60세 이상 여성들
과 함께 도시, 젠더, 나이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일상의 공간에서 여성 신체의 현존을 영상
으로 담았다.

샤닌 안토니의 「터치」는 작가가 해변
모래사장 위 외줄을 걸으며 순간적으로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이어내는 착시를
연출한다. 관객은 자연이 가진 리듬과 인간
의 행위가 교차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4

이밖에도 파올라 프로아뇨 메시아스의 「물결 아래 천 개
의 눈동자」, 라울 발히의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솜 수파
파린야의 「달의 양면」, 김상돈의 「알 그리고 등대」, 최원교
의 「아홉」, 올라프 홀츠압펠의 「언덕 사이로 길은 흐릿하지
만 우리가 될 수 있는 풍경은 아름답다」 등 다채로운 작품
이 공간을 메운다.



5

C구역은 음향 설치와 조각 중심의 공간이다. 마르코 바로
티의 「표류하는 소리」는 AI가 다대표 해변의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뿔 모양 스피커에서 바다 생태계의 음향
과 전통 노동요 「다대표후리소리」를 들려준다. 관객은 그동
안 들리지 않았던 바다의 목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하이케
카비쉬의 「마이 시스터즈」는 해마에서 영감을 얻은 조각으
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은유한다.



6

D구역은 체험 중심이다. 우리엘 올로브의 「함께, 걷고, 사유하고(부선)」는 책 속 문장을 선택해 산책하며 식물에게 읽어주는 독창적인 체험을 제안한다. 관람객은 자연과 언어, 사유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된다.

E구역은 다대소각장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조형섭의 「장기 초현실」은 폐쇄된 소각장을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바라보며, 시간의 층위를 드러낸다. 라울 발히의 「부산의 온도 깃발」은 연평균 기온 변화를 시각화해 기후 위기의 현실을 환기시키며 예술이 환경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F구역은 감각적 경험으로 전시를 마무리한다. 비론 예를 베르트의 「안개 클럽」은 빛과 소리, 안개가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관객이 직접 거닐며 몰입하게 만든다. 마리 그리스마의 「물과 물 사이의 초록」은 플랑크톤을 형상화한 조각 시리즈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풍요로운 생태계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예술과 시민이 만나는 프로그램

바다미술제는 전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시해설 투어, 연날리기, 스노클링 세션, 세대를 잇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전 연령대의 방문객이 바다와 직접 맞닿은 열린 환경 속에서 생태적, 예술적 주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지역 사회와 자연을 다시 연결하는 경험이 된다.

바다와 도시가 만나는 지점

2025바다미술제는 바다와 도시, 그리고 예술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풍경을 빚어내는 자리다. 다대포라는 공간에 켜켜이 쌓인 역사와 생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활기를 얻고 재조명된다. 관람객은 작품을 바라보는 순간, 단순한 미적 경험을 넘어 자연과 사회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번 전시는 바다의 변화무쌍한 리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 무엇보다 예술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곁에서 오래도록 빛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한다.

문의_051)503-6111 / 편집실

- 4 지빅 리 & 필립 씨. 라이너_편린들 : 바닷물결의 기억, 모래, 철, 우레탄, 발포폴리스티렌, 2025
- 5 세바 칼푸케오_포털, 사진 퍼포먼스, 420×600cm(기록 디에고 아르코페), 2025
- 6 김상돈_알 그리고 등대, 철, 방울, 종, 거울, 프레넬 렌즈, 단청 채색, 380×170×170cm, 2025
- 7 라울 발히_부산의 온도 깃발, 섬유 인쇄, 800×2550cm, 2025
- 8 마티아스 케슬러 & 아멧 치벨렉_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작가 지시문, 인쇄 및 디지털, 가변크기, 2025



2025 부산예술회관 기획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

세월을 작품으로 쌓아올린 원로예술가

2025. 10. 27. ~ 11. 2.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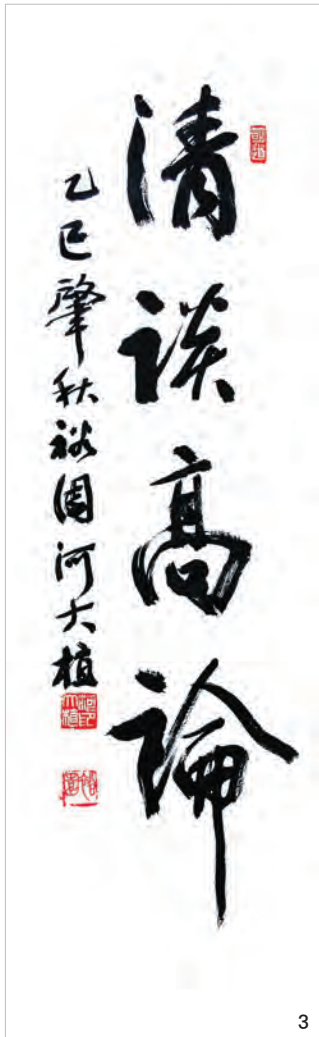
부산예술회관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부산 미술계의 뿌리를 돌아보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부산미술원로작가초대전'은 부산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를 일군 원로예술가들의 창작 정신과 예술혼을 조명하는 자리로, 오랜 세월 부산 미술의 발전을 이끌어 온 이들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영, 김석호, 김선희, 김수길, 김용달, 김지옥, 김진희, 김충진, 김환석, 민병일, 백낙효, 서상환, 신경용, 송대호, 양철모, 여홍부, 윤종철, 이강윤, 이성재, 이충길, 이황우, 장인영, 전준자, 정태영, 조규철, 하대식, 황중환, 최추자 등 총 28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한국화·서양화·수채화·서예·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부산 미술의 깊이와 폭을 보여줄 예정이다.

서상환은 신학적 신념을 도상성과 기호성으로 풀어내는 작가로, 기독교적 해석을 바탕으로 삶의 성찰과 깨달음을 '성상화(聖像化)'를 통해 독창적인 조형언어로 구축해 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십자가 고상」에서는 예수의 형상이



1 윤종철_범어사 가는 길, 37.9×45.5cm, Oil on canvas
2 서상환_십자가 고상(苦像), 33×51.5cm, 나무판 위에 아크릴, 혼합재료
3 하대식_사자성어, 40×100cm, 화선지에 먹
4 이강윤_방목, 20F, Oil on canvas
5 양철모_72×60.6cm, Oil on canvas



기호처럼 패턴화되어 독특한 표현 기법으로 완성되었으며, 종교적 사유가 예술적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토속적인 추상을 모색해 온 양철모는 작품 「포레스트」에서 녹색 삼각형 형태를 통해 숲의 인상을 전한다. 화면을 거칠고 밀도 있게 채운 색감은 자연의 기운을 담아내며, 작가는 한국의 오방색을 중심으로 전통적 조형 감각을 현대 추상으로 확장해 나간다.

윤종철은 '자갈치 여인' 연작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부산 대표 작가이자, 지역 미술단체 [토백회]를 창립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범어사 가는 길」을 출품한다. 자유분방하게 쌓아올린 굵고 거친 붓질이 화면을 풍성하게 만들고 청색이 감도는 탑의 형상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강윤은 어린 시절 체험한 자연과 동물들에 대한 서정을 회화 속에 담아낸다. 「방목」에서는 초원 위를 한가롭게 거니는 흰소와 동물,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화면 중심을 비우고 가장자리에 요소를 배치한 구도가 푸른 들판의 서정성을 한층 강조한다. 구상과 추상 사이를 넘나드는 그의 작품은 다정함과 평화로움을 품어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을 연상케 한다.

하대식은 서예 작품을 통해 고상하고 순수한 담론과 높은 의견을 뜻하는 '청담고론(淸談高論)'을 유려하고 단아한 서체로 풀어냈다. 생동감 있는 필획과 조화로운 구성은 전통 서예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전한다.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온 원로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부산 미술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그들이 쌓아온 창작 정신과 예술혼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2025 부산예술회관 기획

2025 굿바이 메모리展

현대미술 물결! 다양성의 원천!

2025. 9. 30. ~ 10. 14.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

(사)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가 주관하는 '2025 굿바이 메모리展'이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간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임원 56명의 평면·입체·학술 등 다양한 전공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현대미술 물결! 다양성의 원천!'이라는 주제를 공유한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이 지닌 예술적 상상력을 변화와 희망으로 아우르고, 시각적 언어들은 다채로운 시간의 층위로 표현했다.

'2025 굿바이 메모리展'은 부산이 지닌 고유의 정체성을 예술로 원동력을 삼아 미래로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접목해 진행됐다.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지닌 지역적 시간의 층위를 자연스럽게 전시에 녹여낸 작품들은 다양한 조형적 언어를 상징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주제와 표현 방법에서 참여 작가의 특징을 나타내며, 동시대 부산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반영했다. 전시는 각 장르의 매체적 다양성이 두드러진 작품들로 관객들에게 또 다른 예술적 울림을 전달했다.

3층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은 최장락의 「다시 영광을...」이다. '부산 전국체전을 모티브로, 전체 이미지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도전을 역동적인 장면으로 함축했다. 경기장의 트랙을 중심으로, 그 배경에는 바다와 섬, 산성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담아낸다. 특히 중앙에는 각국 국기가 새겨진 허들을 넘는 육상 선수를 역동적으로 부각시키며, 체전을 통한 세계와의 교류, 도약의 의미를 직설적으로 환기했다. 직관적 형태와 간결한 색면 구성으로 시각적 명료성과 녹색과 파란색의 병치를 통해 '체전'이라는 역동성과 '부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직조했다. 디지털 프린팅으로 구현된 작품은 스포츠가 지닌 상징성과 공동체적 이상을 동시에 부각했다.

이어서 시선을 돌려보면 '대자연'을 주제로 한 박인관의 「새하늘 새땅2024-13」 작품이 있다. 만물의 근원이자 삶의 터전인 산수山水와 하늘, 땅의 자연물들을 회화적 언어로 풀어냈다. 화면 위에 펼쳐진 풍경은 단순한 자연의 재현을 넘어,

구름 속을 유명하듯 떠 있는 산세와 흐릿한 경계 속 배치된 구름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시간의 흐름 속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흔적을 모호하고 미지의 공간으로 환원시키며, 그것을 감각적으로 포착했다. 두텁게 쌓아 올린 유채의 물성으로 겹겹이 칠해진 산의 형태는 단순한 풍경이라기보다는 근원적 세계, 존재의 본질로 향하는 내면적 여정을 암시한다. 마띠에르로 드러난 질감과 색채의 레이어는 시각적 깊이를 넘어 시간성과 정신성을 품은 층위로 확장됐다. 자연을 인간 존재와 우주의 질서가 만나는 근원의 장으로 해석하고, 그 철학적 의미를 회화 언어로 형상화했다.

다음으로 정인동의 「상춘곡」이 눈에 띈다. 한국적 정서를 서예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며, 글귀와 선, 그리고 짙은 녹음의 색감을 통해 화면을 구성했다. 조선 전기 대표적 가사 문학인 정극인의 「상춘곡」을 원전으로 삼은 작품은, '봄을 즐기는 노래'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찬미한다. 고전적 서사를 단순히 서예의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융합해 새로운 시각 언어로 치환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성의 다리를 놓는다. 선은 단순한 형태를 넘어 감정의 흐름과 사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체 속에 깃든 운율과 여백은 관객에게 내면적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고전과 현대, 문자와 이미지

의 경계를 해체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던진다.

이순이의 「인연」은 자연의 상징적 존재인 '연꽃'을 중심 소재로 삼아,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붓질과 다층적으로 쌓인 색채의 밀도를 통해 깊이 있는 조형언어로 구축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일한 자연의 형상이지만, 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이미지 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인간관계의 복잡한 맥락과 내면의 감정선을 암시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현대사회 속 개인이 겪는 관계의 유동성, 그리고 존재의 불확실성을 시각적으로 은유하며, 일상의 층위 속에서 잠재된 심리를 섬세하게 투영했다. 연꽃이라는 자연물에 동시대적 감각과 내면의 서사를 입힘으로써, 단순한 풍경을 넘어선 정서적 울림과 철학적 사유를 끌어냈다.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이 지닌 열정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예술의 창의성을 결합한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는 열정과 문화예술의 향유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며, 예술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부산의 문화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1 최창락_다시 영광을..., 594×841mm, Digital Print, 캔버스천, 2025 2 박인관_새하늘 새땅2024-13, 90.7×72.7cm, 캔버스 위에 유채 및 혼합재료, 2024 3 정인동_상춘곡, 50×50cm, 화선지, 먹, 한국화물감, 2025 4 이순이_인연, 40×40cm, Water color on paper, 2025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III

위대한 유산

2025. 9. 30.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9월의 마지막 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전통의 미래'를 향한 장대한 울림으로 가득 찼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인 '창작 위촉곡 시리즈 III' 〈위대한 유산〉은 제목처럼 한국 전통음악이 품은 정신적 유산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였다. 이번 공연은 2026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무사 개최를 기원하며, 우리의 음악이 지닌 '무형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도 더했다.

이동훈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펼쳐진 이번 무대는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거대한 서사로 구성됐다. 특히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인류무형유산'이라는 개념 아래, 이준호 작곡의 「종묘제례악 보태평지악 중 희문·역성」으로 막을 열고, 이어 네 편의 위촉 초연곡이 각기 다른 결의 울림을 만들어냈다.



「종묘제례악 보태평지악」 중 「희문」과 「역성」은 종묘에서 제를 지낼 때 연주되던 열한 곡 중 각각 첫 곡과 마지막 곡으로, 국가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를 이준호가 편곡해 「종묘제례악 보태평지악 중 희문·역성」으로 재해석했다. 악장 이희재와 김윤지의 참여로 선보인 연주는 종묘제례악의 장중한 격식을 국악 관현악의 음향으로 재구성하며, 의식의 무게와 엄숙함을 현대적 감각 속에서 되살려냈다. 장중한 장단이 공간을 가득 채울 때마다 마치 조선의 제례 현상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이희재와 김윤지는 긴장감 속에서도 유연한 균형을 유지하며 고전이 지닌 품격을 완성했다.

이어진 최승식의 「희망의 울림」은 전통음악이 품은 공동체적 정서를 가장 따뜻하게 전한 순간이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상실의 시대를 지나온 우리에게, 이 곡은 ‘다시 함께 살아가는 소리’를 제안했다. 다양한 국악기의 선율이 서서히 겹치며 일상의 희망을 되살리는 듯했고, 객석 곳곳에서 목직한 전율이 감돌았다.

세 번째 곡 조원행의 「범음梵音」은 범패의 선율적 특징과 움직임을 소아쟁의 카덴차(cadenza)에 적용하고, 대중에게 축원과 포교의 의미를 전하는 불교음악 ‘화청’을 활용해 작곡된 작품이다. 가곡과 판소리와 더불어 한국의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의 소리와 국악관현악의 조화는 단순한 청각적 감상을 넘어 내면 깊은 곳을 울렸다. 아쟁 최영훈과 구음 박성희의 협연은 연주가 아닌, 수행자의 호흡처럼 느껴졌다.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긴장이 교차하며 담백하면서도 단단하게 뻗어나가는 범패의 미학이 무대 위에서 다시 피어올랐다.

네 번째 곡 이정호의 「내면으로부터」는 음악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여정을 그려냈다. 류근화가 연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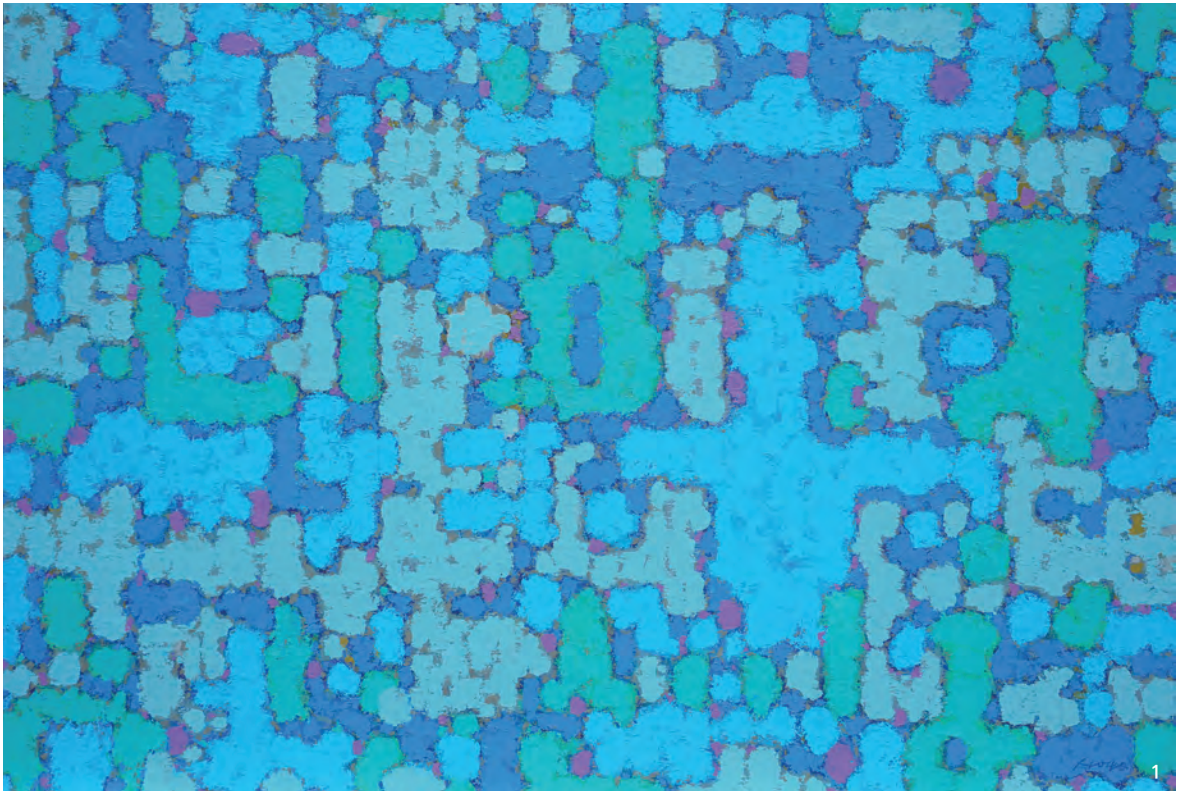
대금은 숨결과 호흡, 공기의 떨림까지 소리로 바꾸어내며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게 했다. 일정하지 않은 강약의 흐름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인간 내면의 불안과 그 너머의 평화를 향한 움직임을 그려냈다. 이 무대는 관객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마지막 무대, 김성국의 「푸른 신의 춤」은 이번 공연의 정점을 장식했다. ‘동해안별신굿’에 등장하는 ‘해신’의 존재를 모티프로 한 이 곡은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져 동해와 하늘, 신화와 인간을 아우르는 역동의 서사를 펼쳐냈다. 하지희의 가야금 연주는 파도처럼 일렁이며 자연의 숨결과 생명력이 몸을 타고 흐르는 듯했고, 관현악단의 웅장한 스케일이 더해지자 무대 전체가 거대한 해류처럼 살아 움직였다.

〈위대한 유산〉은 전통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써 내려간 우리 세대의 전통음악을 보여주었다. 이 무대는 국악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 쉬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임을 증명했다. 〈위대한 유산〉의 울림은 마음속 깊이 남아서 앞으로 이어질 창작 위촉곡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리고 지금의 음악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임을 일깨워주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84년 5월 23일 창단되어 전통음악 계승 발전 및 창작음악을 개발하고 ‘해양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폭넓게 활동을 펼치는 연주단체이다. 전문연주자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정기, 특별, 기획연주회와 국내외 다양한 연주회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수준 높게 소화해 내고 있다.

글_박준영



토백회 창립 50주년 기념전시회

토백회가 걸어온 반세기 부산 구상미술의 오늘과 내일

2025. 11. 4. ~ 9. 금련산역갤러리

부산의 구상미술을 선도해 온 토백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아 '토백회 창립 50주년 기념전시회'를 마련한다. 1976년 윤종철을 중심으로 김문수 양재식 구은인 박기택 박맹식 이성기 안세홍 정차영 등 작가들이 뜻을 모아 부산에서 출범한 토백회는 반세기 동안 지역 미술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깊은 발자취를 남겨왔다. 특히 향토미술의 정통을 계승하는 한편, 구상미술의 독창성과 개별적 미감을 담아내어 부산미술사에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작가 박기택은 「까치와 여인」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양화가 권옥연의 영향을 받아 여인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길조의 상징인 까치를 배치해 어머니의 모정을 그림으로 완성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고개를 들어 까치와 마주하는 모습은 서정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릴리프기법과 한국의 전통문양, 소재를 활용해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백낙효의 「어룡농주(農畝)」를 만날 수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잉어와 삼태극 문양을 배치해 소망과 기원을 담은 형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완성했다.

이상봉은 자연이 주는 최소한의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 추상적 이미지를 끌어내며, 내면적 풍경과 사유의 공간을 표현한다. 그의 작품은 가슴에 담은 이야기를 경계 없이 펼치며, 미묘한 색채의 운율을 통해 화면에 끝없는 변주를 주어 대상을 기억 속 흐릿한 형태로 완전히 변형시키고 끝나지 않는 여운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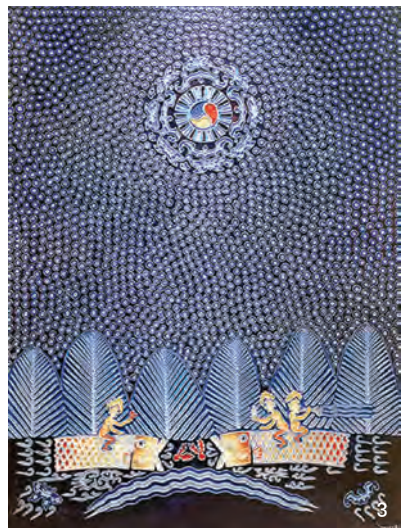
이진희는 아크릴과 먹을 활용해 재료가 지닌 질감과 양감, 빛의 움직임에 극대화하며 바다에 대한 내밀한 인상을 보여준다.

손제현은 정물화를 사진처럼 정밀하게 표현한다. 유리그릇에 담긴 딸기를 극명한 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려 하이퍼리얼리즘적 형식을 구현하고, 배경에 스며든 물감의 흔적과 대비를 이루며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번 전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원로작가와 초대작가, 그리고 작고 작가까지 총 36인이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한층 더 깊게 한다. 이처럼 한 세대의 작가들이 어우러져 펼쳐내는 이번 전시는 토백회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동시에 부산 구상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_010-6218-5445 / 편집실

- 1 이상봉_가슴에 담은 이야기, 162×112cm, 캔버스에 유채, 2025
- 2故박기택_까치와 여인, 72.7×60.6cm, 캔버스에 유채, 2019
- 3 백낙호_어룡농주(공화), 130×97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4
- 4 손제현_감각의 확장, 90.9×60.6cm, 캔버스에 유채, 2025
- 5 이진희_꿈꾸는 자의 시간속으로, 53×45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23



‘미지의, 대지의 기억을 회복하다.’

2025. 10. 1. ~ 31. Migiui

부산 아키텍처 무브먼트(Busan Architects Movement(이하 밤BAM))의 ‘건축가의 그래픽’ 전시회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첫 번째 전시는 지난 4월 부산 굿올데이즈 호텔 1층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8월 울산 그라비 서생점, 10월 울산 미지의에서 차례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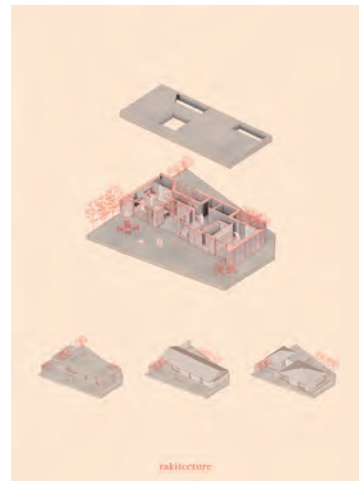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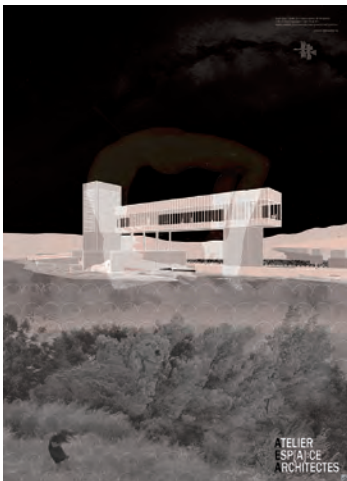
전시회는 건축가라는 존재가 문화로 자리 잡아 도시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부산의 건축가들이 모여 발전시키기 시작한 밤은 현재 부울경 지역의 23개 건축사사무소, 35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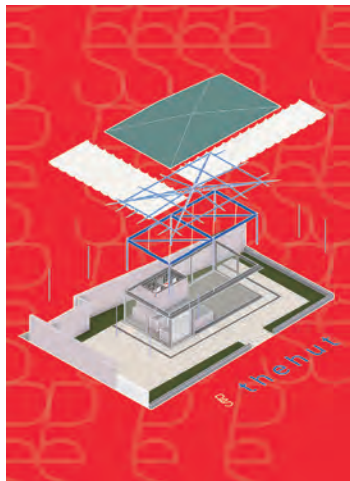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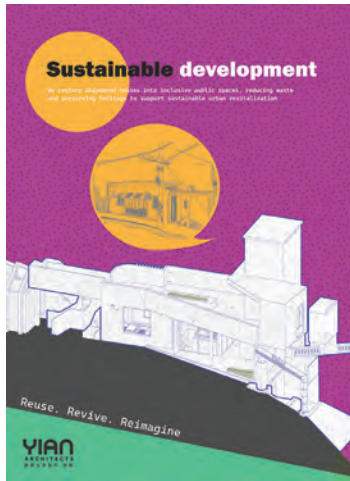
‘건축가의 그래픽’은 참여자와 관람객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로, 건축가들이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스케치, 다이어그램, 도면, 3D 모델링 등 다양한 이미지들을 그래픽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선보이고 있다. 이는 건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축가의 창작 과정을 대중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밤의 전시는 건축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협업하는 즐거움, 그리고 건축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운영 방식이 핵심이다. 이번 전시 포스터에는 각 건축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건축의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담겼으며, 올해는 인도네시아 BDD(Bintaro Design District)로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더욱 많은 건축가의 그래픽을 온라인에 아카이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 내 일상 공간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지역 건축가들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의_010-2810-5901 / 편집실

건축가의 세 번째 그래픽이야기







자작나무숲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800m 고지에 위치한
자작나무숲은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자연 명소이다.
하늘과 맞닿아 햇살을 한아름 머금은 단풍은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줘.”

글 사진 김성숙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업간사

푸른에세이

2024.11.24 (MONDAY)



소금쟁이

‘물 위를 걷는 자’는 소금쟁이의 영문 이름자 풀이다. ‘전지전능’이란 낱말을 떠올린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호수 위를 걸어가셨다는 성경 속 일화 덕분에 예수 곤충이란 별명을 달았다. 하지만 물 위에서만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지느러미도, 날개도, 거기다 돈까지 갖지 못한 인간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거주지는 예부터 땅 위가 아니었던가.

톤레삽은 동남아시아 최대 담수호다. 건기에는 제주도 크기에 대략 2미터였던 깊이가 우기에는 경상북도 크기에 깊이는 거의 12미터에 달한다. 크메르인들이 호수 가장자리에 수상가옥을 짓고 사는 기둥의 마을, 캄퐁 플럭에서 유람선을 타고 ‘물 위에 뜬 마을’을 보기 위해 선착장에 도착했다. 총 끄니에 수상마을을 가까이



서 자세히 둘러보려면 쪽배를 타야 한다. ‘물 위에서 살다가 물 위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 중일전쟁으로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피난 나왔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가지 못하고, 물 위를 떠돌던 수많은 난민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엮고 있었다.

버티는 중이었다. 부표처럼 뜬 집들이 소금쟁이처럼 엮디어 물에 빠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소금쟁이가 다리의 수많은 잔털과 물 표면 사이에 공기층을 이뤄 물에 빠지지 않는 이동이 가능한 것처럼 물 위 마을도 집집마다 몇십 개의 빈 드럼통으로 물과 타협한 채 생을 이어간다. 가끔씩 낡은 줄이 풀려 흘러가도 그물에 걸려 다시 집 아래로 자리를 찾는 드럼통들은 수상촌 사람들의 일상을 가능하게 해 주는 가늘고 긴 다리고 미세한 잔털이다. 옛날에 글짓기 선생님은 소금쟁이가 우아하게 물 위를 미끄러진다고 표현하셨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멩에를 어깨에 걸고 지계를 끈 작대기 끝을 들고 일어서며 무게 중심을 잡아나갈 때, 아재들의 이마에 불거지던 핏줄을 보고 자랐다. 소금을 진다면 걸음은 얼마나 더 무겁고 느려졌어야 할까. 놀이 멋지다던 유튜버의 추천사를 듣고 왔는데도 부유하는 삶의 허술함을 확인하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총 끄니에 마을의 집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타이어나 나무판, 배 같은 것의 부력을 활용해서 열기설기 지은 수상가옥들이 동네를 이루었다. ‘맞닿은 나무터’, 뭔가 낭만적인 것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어설픈 구조물에 힘든 삶을 의탁한 채 그들은 거기서 취사하고, 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운다. 땅 위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큰 소망이라는데 자유로이 육지를 들락거리지도 못하는 마당에 그게 쉬운 일일까. 섬에서 자랐지만 수영도 배우지 못한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린다. 밤에도 흔들려야만 할 소금쟁이들의 마을 안 물길을 뗏잎 같은 쪽배를 타고 미끄러지면서 관광객들이 그들의 빈곤을 훑쳐본다.

구명조끼를 입고 쪽배의 뒤편에는 사공이, 앞쪽에는 나와 친구가 앉았다. 가이드가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몰려들어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설명에 긴장되었다. 배가 날렵하게 수상가옥들 사이를 빠져나가는데 고무대야를 탄 예닐곱 살 된 아이가 다가오며 “원 달라.”를 원다. 탄식이 나오다 목구멍에 걸린다. 어린아이를 가슴에 붙여 앉히고 작은 쪽배를 홀로 탄 여자가 따라온다. 저 아이의 어미일까. 그 눈길을 볼 자신이 없어 애써 외면하였다. 제일 큰 집이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만든 학교라 했다. 이곳 교장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말라고 부탁한다는 가이드의 말을 명심하고 따라붙는 대야를 애써 외면하였다. 아이들의 구걸 실적이

더 좋기에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온 내 가슴이 화닥거리다 못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다.

한 소녀의 손을 거절 못해 사온 기념품 쟁반을 들여다본다. 가운데 자리한 내 사진 속 동자는 흐리고 윤곽은 불분명하다. 그걸 볼 때마다 회한의 장벽에 갇히곤 한다. 그곳에서 가진 호화로운 만찬과 즐거운 체험이란 게 평소 내가 가꾸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휘저어 놓는지 들여다볼 자신이 없어 해를 한참 넘긴 지금까지 사진 정리도 글 쓰기도 미루었던 것 같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구걸을 시키는 어미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면 그들을 비난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귀찮다는 이유로 가이드나 수상학교 교장의 요구를 내심 반겼던 것은 아닐까. 가족을 위해 투정하지 않고 장사에 나선 해맑은 어린아이보다도 미숙했던 예순 넘긴 어른이라니.

전쟁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속에 그들의 하루가 새고 저문다. 우리 일행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넘어왔는데 베트남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즐기고 온 뒤라 그들의 처지가 더 안타까웠다. 전쟁이 끝났지만 공산 베트남은 전쟁 당시에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그들을 막았다고 한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타국에 의탁하였으나 그들에게 평생 흔들리지 않는 날은 없다. 그나마 메콩강의 비옥한 황톳물이 넘치게 흘러들어 물고기를 키우는 톤레삽에 자리를 잡았으나 우기와 건기의 물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나 해마다 몇 번이나 집을 끌고 이사 다녀야 하는 처지란다.

흙탕물 천지인 호수를 배를 타고 달린다. 총 끄니에 주민들에게도 관광수입의 혜택이 올지는 의문스러웠다. 화려한 복장으로 마을을 누비며 카메라를 들이대는 관광객들을 그들 또한 구경하고 있을 것 같다. 어떻게 그들의 남루를 말하고, 누추함을 논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세상에는 난민으로 사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 마을에는 상점도 있고, 사원도, 교회도 있었다. 생수병을 보내주는 NGO도 있고, 타국의 병원선이 올 때도 있다고 하였다. ‘본질보다 실존이 우선’이라는 사르트르의 말을 중얼거리해보지만 본국에서도 버림받은 이들이 자리한 이곳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본국과 전쟁을 해서 패전한 캄보디아의 영토가 아닌가.

숙제를 하느라 소금쟁이를 키운 적이 있었다. 손에 들고 살피는데 뒷다리 한 마디가 똑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뱅글뱅글 돌던 소금쟁이가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제 보니 균



형잡기도 방향잡기도 어려워진 것이었다. 그 일이 한 생명의 앞길을 망친 만행이었음을 각성하는데 참 오래 걸렸다. 소금쟁이 탓이 아니었고, 힘없는 피난민들 탓도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 '원 달러'를 외치던 아이도 자라서 어른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만 맴돌게 될까 봐 두려워진다.

'원 달러'라는 말이 귓전에 웅웅거린다. 그 아이들이 땅을 자유로이 딛고 서는 날은 언제일까.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물 위에서 맴도는 아이들에게 채워진 족쇄가 풀리는 날을 기다린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디아스포라의 아픔, 그들은 아직도 보트피플이다.

글_송명화 수필가

2025 부산예술상 특별상 수상자 클라리네스트 차호철

어머니의 권유로 처음 클라리넷을 입에 댄 소년은, 부산과 유럽을 오가는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그 악기를 놓지 않았다. 그 집념은 마침내 '2025 부산예술상 특별상'으로 이어졌고 그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로 우뚝 섰다. 차호철은 연주자이자 교육자로서 부산을 무대로 폭넓게 활동 중이다. [KNN 방송교향악단] 수석단원, [양산윈드오케스트라] 악장, [부산청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무대와 강단을 오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하반기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음악으로 하루를 채우는 기쁨'을 말하는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수행평가로 시작된 음악의 여정

클라리넷과의 첫 만남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음악교사였던 어머니가 음악 수행평가를 준비하라며 클라리넷을 사주신 것이 계기였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리코더나 단소로 준비할 때, 음악교사의 아들이라면 조금은 특별한 악기를 연주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악기의 이름조차 낯설었지만, 처음 붙었을 때 들려온 어둡고 따뜻한 음색에 곧 매료됐다. 관악기의 특성상 소리를 내기 어려운 편이지만 그는 첫 시도부터 음을 냈고, 연습할수록 실력이 상승하는 재미에 빠졌다. 수행평가 곡이었던 「푸른 옷소매(Greensleeves)」를 성공적으로 마친 순간부터 이미 그의 길은 정해져 있었다. 이후 부산예술고에 진학하며 본격적인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부산대학교를 거쳐 프랑스와 벨기에로 이어지는 유학길에서도 단 한 번도 악기를 놓지 않았다.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확장된 음악 세계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정우영 전 수석



-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대학교 클라리넷 전공 졸업
- 프랑스 누와지엘 국립음악원 DEM,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 석사 졸업
- 벨기에 몽스 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 수료
- 스페인 Julian Menendez 국제콩쿠르 2위, 프랑스 Velizy 국제콩쿠르 1위 등 입상
- 현) 앙상블 9°odo 멤버, 효원클라리넷 앙상블 대표
- 부산청년오케스트라 단원
- 부산예술중고, 부산예술영재교육원, 경남대학교 강사
- KNN 방송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 양산윈드오케스트라 악장

의 지도를 받으며 탄탄한 기초를 쌓았다. “국내에서의 시간은 나무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기였다면, 유학은 그 위로 가지를 뻗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서양음악의 본고장에서 클래식을 배우기 위해 유럽으로 향했다. 외국인이 국악을 배우려면 한국에 오듯, 클래식을 연주하려면 유럽으로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프랑스 누와지엘 국립음악원에

서 전문연주자과정(DEM)을 거쳐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클라리넷 석사 과정을 마쳤고, 몽스 왕립음악원에서는 지휘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코로나19로 졸업을 앞두고 귀국해야 했던 아쉬움이 남았지만, 유럽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깊은 음악적 통찰을 남겼다. 특히 국제 콩쿠르 참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당시 무대에 오른 한국인은 자신 혼자뿐이었다. 마치 국가대표가 된 듯한 부담감 속에서도 끝내 입상했고, 자신의 연주가 국제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을 얻었다. 물론 실패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차호철을 만든 밑거름이었다.

연주에서 출발한 다양한 활동

차호철 클라리네스트는 현재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에게 교육의 핵심은 '태도'다. 음악을 단순한 기술로 보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로 여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음을 내는 법보다는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먼저 가르친다. 연주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완성된 음악가가 될 수 없으며,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할 때 비로소 음악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의 교육 철학은 어린 시절의 배움에서 비롯되었다. 스승 정우영 선생에게서 기초의 중요성을 철저히 배운 탓에, 지금도 기본기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단단한 기초가 쌓여야 어떤 곡이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고 오랜 시간 연주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화려한 테크닉보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질 것을 늘 강조한다. 연주와 교육의 균형 역시 중요한 과제다. 낮에는 학생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무대에 오르며, 두 영역 모두에서 보람을 느낀다. 교육이 성장의 기쁨을 준다면, 연주는 존재의 본질을 확인하게 한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마친 뒤의 성취

감, 청중의 호응은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연주자와 교육자의 경계를 넘어서 악단의 운영과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청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업무에도 관여하면서 무대 밖의 현실과 시스템을 함께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음악가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단체를 이끌거나 후배를 지도할 때 큰 자산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연주자이자 예술가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배우며, 오늘도 보다 넓은 음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도전, 그리고 더 넓은 무대로

차호철 클라리네스트는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독주회를 준비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과 현대음악을 융합해 관객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의 익숙한 레퍼토리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과 실험적 해석을 더한 무대를 통해 클라리넷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려 한다. 또한 '부산예술상 특별상'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지역사회가 인정해 준 결과이자, 나고 자란 도시에서 받는 상이라 더 큰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수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연주와 교육 두 영역 모두에서 더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한다.

연주자 차호철에게 연주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음악을 통해 사람과 교류하고, 행복을 나누며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하나의 매개체다. 그는 처음 클라리넷을 불던 날 느꼈던 그 따뜻한 울림으로 지금도 음악의 기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있다. 그의 숨결이 한 음 한 음 음악으로 완성될 때마다, 그 소리는 자신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나간다. 그렇게 오늘도 음악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

글 박준영

2025 '젊은예술가상' 수상

작가 김종택

-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예술학 박사
- 개인전 10회, 그룹전 100여 회
- 부산미술협회 청년위원장, 부산예술고등학교 수석강사,
- 부산 독립미술가협회 회장, 그룹상 회원, 허브 미술학원장

인간을 비롯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관계는 가령 미시적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확장에 의한 생명 현상처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고 보이는 현상 또는 어떤 역사적 사건 등의 거시적 의미들까지 광범히 포함한다. 김종택 작가의 작업은 이들이 이루는 근본적인 개념을 시각적인 요소들로 풀어내고, 삶과 연관된 모든 본질적 요소의 탐구로부터 시작됐다.

유년 시절부터 생명의 탄생과 미시적 순환 원리와 같은 존재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던 김 작가는 나아가 우주의 심오한 세계와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 유기적 관계로 보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술과 연계하며 그만의 언어로 풀어냈다. 모든 생명은 서로를 지탱하고, 우주의 순환 원리 안에서 호흡한다. 자연

과 인간, 물질과 에너지의 교류를 독창적 시각 언어로 표현하며, 작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의 형상을 가시화했다. 즉, 이는 생명과 우주가 맺는 대화를 그가 가진 시각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주는 고요한 혼돈이며, 그 속의 무수한 생명을 색·형태·리듬으로 구성하고, 생명이 서로 맺는 감응의 장막을 우주 원리에 따라 감각적으로 배열한다. 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계의 정의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김 작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태초부터 이어진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생성과 소멸을 시각적인 요소로 재구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품에서 적용된 개념과 요소의 가치를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김종택의 초기작에서 표현된 형태와 이미지들은 '생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시각적인 요소들을 부각하여 이를 화면에 적용했다. 이때부터 주 소재로 식물의 '나뭇잎'이 등장하는데, 자연과 생명의 근원적 모습을 가진 이미지는 주제에 대한 은유적 의미에 효과적으로 스며든다. 작품 속 생명의 존재들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유기체로 인식된다. 작가는 각각의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구조를 지니고, 이는 인간 또한 그 일부임을 암시한다. 형상들은 경계를 흐리며 서로 스며들고, 그 안에서 생성과 소멸, 결합과 분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생명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관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도이자, 현존하는 세계와의 공존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사유하게 하는 시각적 은유를 뜻한다. 초기의 관념적이고 심오한 세계의 구체화 이미지들은 이후 작가 본인의 경험이나 지나간 시간에 따라 일반적인 관념과 인식이 담긴 조금 더 일상적인 것으로 변화를 이어간다. 관계에 대한 표현의 다양성은 그에게 삶의 변화에 따른, 가령 가족과의 관계, 사회 속 변화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여행자의 지도 A map of traveler」 시리즈에서는 여러 형형색색의 나뭇잎이 도형 조각으로 하늘을 수놓고 있고, 공간 속 하단에는 배경 속 새로운 공간을 테라리움처럼 재구성하여 새로운 세계의 풍경을 구현했다. 평면 속 입체적 요소를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자연과 삶의 일상을 그만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그에게 작업은 관계의 흔적을 담아내는 기록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그것은 크게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인공, 존재와 부재의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화면 위에서 형태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명체 간의 관계가 확장되는 과정처럼 끊임없이 변화함을 지시적으로 나타냈다. 최근작에는 본질적인 것에 관한 거짓과 허상, 진실과 거짓 등 사회적 문제점을 관계적 측면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작품의 주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작가가 어떤 현실에서 겪는 삶의 과정과 마음, 심리적인 상태가 작업에 온전히 반영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패턴, 어떤 온도에 따라 작품 속 주제의 온도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예술가상'을 수상한 그는 작품을 통해 관객과의 시대적 담론 형성과 감동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적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거리에 피어 있는 나무와 꽃처럼 자연스레 하나의 향기로 스며드는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부에서 처음 그림을 시작한 그가 꿈 많은 미술학도에서 이제는 중견 작가이자 교육자로 성장했다. 학교와 학원에서 강의, 그리고 밤낮으로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도 그는 “창조의 원천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일상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피력하며, 삶과 예술이 맞닿은 지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상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미술가로서, 현시대에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글 인물사진 백근영



여행자의 지도[기다림]
116.8×91.0cm, Acrylic on canvas, miniature, 2018

그 음악, '최삼화답다'

작곡가 최삼화

- 부산음악교육연구회 부산작곡가협회
(사)부산음악협회 회장 역임
- 미국텍사스주립대학 연구교수
- 현)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명예교수,
한국창작합창21 고문



“부산예술대상이라는 큰 영광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산 음악인 모두와 함께 나누는 성취라 생각합니다. 남은 세월도 음악으로 시민과 호흡하며 지역 예술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24회 부산예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작곡가 최삼화는 인터뷰의 첫머리에서 수상 소감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그는 부산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수많은 훌륭한 예술인들을 떠올리며, 이번 수상이 자신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를 더욱 깊이 성찰하게 했다고 말했다. 세월 속에서 쌓아온 삶을 돌아보며 “조금 더 규모 있고, 조금 더 계획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이제 그

의 음악에는 자연스레 ‘최삼화답다’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것은 곧 그가 걸어온 시간과 음악이 함께 빛어낸 또 하나의 이름이다.

선율에서 시작된 길

최삼화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음악과 가까이 지냈다.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던 어머니 덕분에 집 안에는 늘 찬송가가 울렸고, 외삼촌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이러한 환경으로 그는 일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피리와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자랐다.

김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최삼화는 시골교회에서 열린 여름성경학교 중창 시간에 처음으로 음악의 하모니를 경험했다. 여러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울려 퍼질 때 느껴

지는 벽찬 감동은, 어린 소년에게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심어주었다. 이후 중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께서로부터 매섭게 시창 교육을 받으며 음악가로서 한층 단단해졌다. 악보 읽기에 점점 익숙해졌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뛰어난 청음 실력을 인정받으며 본격적으로 작곡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다가 고1 때 진주에서 열린 개천예술제에 작곡 부문으로 출전해 입상했습니다. 당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인 조례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 직접 상을 받았어요. 그때 ‘아, 음악을 전공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그날 정해졌죠.”

부산에서 음악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다

음악을 전공한다는 것은 많은 뒷받침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집안에서는 그의 선택을 반대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망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결국 최삼화는 부산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천혜의 경관을 가진 도시는 드뭅니다. 게다가 부산은 대단히 개방적인 도시예요. 이곳이 나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벽도 느껴지지 않았습시다.”

그의 확고한 음악 인생은 오스트리아 빈 유학으로 이어졌다. 국립음대에서 카타마이어 교수를 사사하며 작곡가로서의 기반을 다졌고, 귀국 후에는 부산여자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 강사를 거쳐 1992년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음악교육연구회, 부산작곡가협회, 부산음악협회, 동아시아작곡가회, 한국창작합창21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부산 음악계에 거대한 뜻을 올렸다. 최 작곡가의 항해는 그렇게 부산이라는 바다 위에서 한층 더 깊고 넓게 펼쳐졌다.

서정성과 구조의 예술, 음악

최삼화에게 작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감정과 사유가 교차하는 과정이다. 그는 “작곡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말한다. 독서나 음악 감상,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물의 아름다움 역시 창작을 자극하는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다. 최삼화의 음악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서는 1995년 작곡발표회에 남긴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직접 서술한 짧은 글에는 ‘고향의 서정성’이라는 주제가 중심에 자리한다.

“내 음악의 산실은 나를 낳아 길러준 고향 농촌 시골이다. 고향은 자연 그대로의 노래요, 나의 음악이다. 강과 산, 그리고 꽃, 새, 바람과 구름은 살아 호흡하는 내 생명의 원천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작품들은 기교주의의 난삽함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억양에 맞는 시어의 처리와 가락의 흐름 위에 맑은 서정을 담으려 했다.”

- 1995년 4월 4일, 최삼화 작곡발표회
‘작곡가의 변遷’ 중 일부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_왼쪽부터 최삼화 작곡가, 선용 시인, 조혜선 작곡가



“
 작곡은 마치 건축과 같습니다.
 단단한 뼈대 위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세밀하게 장식해
 완성해 가는 과정이죠.
 ”

이 글에서 드러나듯, 그의 음악은 기교보다 인간과 자연의 교감, 그리고 고향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최삼화에게 음악은 단지 작곡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을 길러준 자연과 시대, 그리고 삶의 기억이 함께 호흡하는 하나의 존재 그 자체다. ‘작곡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삼화 작곡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가장 공을 들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작품 구상의 핵심 요소로 선율·리듬·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작곡은 보통 두 마디 정도의 최소 동기에서 시작해 전체 작품을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든다. 그는 “좋은 음악은 짧지만 완성도 높은 동기에서 출발한다”며 “그 짧은 선율이 음악의 전체적 뼈대를 형성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리듬은 단순해 보이더라도 곡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선율 속에 내재하거나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리듬은 대비와 통일의 조화를 통해 곡의 긴장감을 완성한다.

화성은 서양음악의 근간으로, 다채로운 색채를 담고 있다. 최 작곡가는 “화성은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아름다움과 서정성, 혹은 불협화를 통한 긴장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며, 적절한 긴장과 이완의 흐름이 음악 전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요소는 형식과 구조다. 그는 “작품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흐름과 구조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정-반-합(A-B-A)의 형태로 설명했다. 즉, 긴장-이완-클라이맥스-해결

의 과정을 음악의 구조로 본 것이다. 최 작곡가는 작곡을 건축에 비유했다. “작곡은 마치 건축과 같습니다. 단단한 뼈대 위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세밀하게 장식해 완성해 가는 과정이죠.” 그의 설명은 “건축은 응결된 음악이다”라는 괴테의 표현에 가닿았다. 작품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특히 우리 전통음악의 음계와 선율 구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요석(樂石) 김성태의 예술가곡에 나타난 선율구조 연구」, 「I. Stravinsky의 〈Symphony of Psalms〉에 나타난 신조성 구조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5음음계에 기반한 인접음 화성 구조를 주제로 독창적인 작곡 논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작품으로 말하다

“저는 특히 합창곡과 교회음악에 애착이 깊습니다.”

최삼화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뿌리에 신앙과 사회적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저의 음악은 결국 삶을 반영합니다. 신앙과 시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나지요.”

그는 해마다 [한국창작합창21] 무대를 통해 일반합창곡과 성가합창곡을 유수의 단체 연주로 선보이고 있다. “합창음악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공간에서든 연주자와 청중이 한 호흡으로 이어질 때 그

감동이 가장 진하게 다가옵니다.”

무대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도 남다르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2017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보인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합창음악회>를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언급했다. “그 무대는 저에게 합창음악의 대중성과 예술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합창 외에도 다채로운 작품을 남겼다. 한하운의 시를 바탕으로 한 가곡 「파랑새」와 「보리피리」, 그리고 「나도 동백나무랑」 등이 있다.

“「파랑새」는 몽환적인 화성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했고, 「보리피리」는 우리 민요풍의 리듬으로 깊은 애환을 풀어냈습니다. 「나도 동백나무랑」은 선홍빛 동백꽃에 매혹된 시인의 절규를 담아, 피고 지는 꽃의 생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자 했어요.”

이외에도 가곡 「귀향의 노래」, 관현악곡 「교향시 오케스트라를 위한 <한국의 산하>」, 합창곡 「유일한 사랑」 「자갈치」 「놀라운 신 주의 사랑」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작곡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부산 작곡가의 길

“한국창작합창21은 제가 대학 재직 시절, 전업 작곡가로의 길을 모색하며 시작한 단체입니다.”

최 작곡가는 설립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뜻을 같이한 국내 작곡가들과 함께 합창음악의 창작과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작곡가가 작품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도 후배 세대의 작곡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요즘 젊은 음악가들이 유행이나 남의 시선을 좇기보다는, 자기만의 음악 언어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결국 음악은 끊임없는 연습과 성실



파랑새(한하운 작사, 최삼화 작곡) 악보와 최삼화 작곡발표회(1984)

함에서 나옵니다.”

또한 동시대의 목소리와 주제를 담은 작품을 통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건, 지역이 가진 매력과 개방성 위에서 예술의 가능성을 더 넓혀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적 교류와 제도적 지원이 더욱 보강된다면 부산 예술가들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음악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작곡 과정만큼 신비롭게 느껴지는 일도 드물다. 작품 구상에 관한 질문에 차분하면서도 성실하게 답하던 모습에서는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과 진심 어린 애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대학에서 25년 넘게 후학을 길러온 그의 헌신과 열정은 부산 곳곳에 음악의 씨앗을 뿌려 새로운 세대를 성장시켰다. 이제 ‘최삼화다운 음악’이 부산이라는 항구에 정박했고, 그가 닦아놓은 길 위로 더 다양하고 풍성한 뜻을 단 새로운 배들이 항해를 시작하고 있다.

항구 위에 올려 퍼지는 것은 다름 아닌, 최삼화의 「교향시 오케스트라를 위한 <한국의 산하>」다. 그의 음악은 오늘도 부산의 바람을 타고, 이 도시의 또 다른 미래를 향해 천천히,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글 인물사진 정혜주

서시序詩

안수현

빛이 머문 자리는 잘나에 불과하다
그들의 귀는 숨결 속에서
사라짐을 견뎌낸 언어는 스스로 꽃이 된다

예술은 영광의 무대가 아니라
어둠과 침묵을 넘어
비로소 태어나는 영혼의 갈이다

작가노트 | 예술은 빛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가장 깊은 그늘 속의 시조차 소멸의 문턱에서 기꺼이 꽃을 틔운다.

글 안수현 (사)부산문인협회 평론외국문학분과위원장, 문학평론가, 문학번역가

RE: VIEW

- 영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_ 김민우
- 음악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의 제37회 정기연주회
 예술가의 생애 _ 김윤선
- 미술 기호와 상징으로 확장된 조형造形 세계
 정광화 '입고출신入古出新' _ 백근영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2006년에 1회가 시작,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느덧 30회를 맞이하였다. 30주년에 걸맞게 한국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거장들의 마스터클래스,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초청작, 그리고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신인 감독들과 올해부터 시작된 경쟁 부문까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영화제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해 상영된 작품 중 어떤 영화를 꼽아 소개할지 고민이 많았다. 거장들의 신작이나 주목할 만한 신인 감독들의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새삼스레 차이밍량의 <안녕, 용문객잔>(2003)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제, 더 나아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촉발한 OTT 시대는 우리에게 영화 관람 환경 자체를 바꾸었다. 같은 시공에 모여 각자의 감정을 희미하게나마 공유하던 영화관이라는 현장은, 각자의 스크린을 보유한 채 파편화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인지 영화제에서 내진 슬로진, '영화관은 죽지 않았다'가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안녕, 용문객잔>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영화관과 그 주변의 이야기다.

폐관을 하루 앞둔 복화대극장(전작 <겨진 지금 몇시나?>(2003)의 배경이기도 하다)의 마지막 상영. 호금전의 <용문객잔>(1967)이 상

영하고 있다. 영사기사(이강생)는 영화관을 배회하고, 카메라 역시 영화관을 배회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비춘다. 거기에는 <용문객잔>에 출연했던 마오토편(본인 역)과 스첸(본인 역) 두 노배우도 있고, 끝내 엇갈린 채 만나지 못하는 티켓 판매원(전상치)도 있다. 하지만 <안녕, 용문객잔>의 내러티브를 설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물론 주인공도 있고 그들 나름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지만, 카메라가 주목하는 건 그 마지막 날의 풍경과 먼지, 빗방울, 영화관에 쫓겨이 쌓인 시간의 무게이기 때문이다. 유령처럼 배회하는 인물들은 결코 연결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영화관이라는 장소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 <안녕, 용문객잔>에 담긴 공기와 습도, 소리는 인물이 아니라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상영되고 있는 <용문객잔>의 존재는 중화권 영화에 큰 영향을 끼친 호금전에게 바치는 경의도 있겠지만 영화와 영화관의 추억에 관한 헌사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안녕, 용문객잔>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화관의 추억을 붙잡고 있는 영화라는 건 아니다. 운영이 끝난 이후 굳게 닫혀버린 문의 선명한 이미지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안녕, 용문객잔>은 제목에서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그것을 보내는 방식에 주목하는 영화다. 영화가 시공을 담고, 현실과 환영 사이의 무엇이라고 본다면 차이밍량은 탁월하게 영화가 가진 성질로 영화와 영화관을 기록한다. 이를테면 이런



〈안녕, 용문객잔〉(2003), 차이밍량 감독

식이다. 보통의 영화가 인물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안녕, 용문객잔〉의 카메라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물이 프레임 밖으로 나갔음에도 한참 동안 서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영화의 성질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화장실 시퀀스는 재미있는 장면이다. 영화관을 돌아다니던 영사기사는 화장실에 들어간다. 화장실에는 몇 명의 남자가 소변기 앞에 있고, 이윽고 변소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가고, 그 이후로 문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이후 영사기사가 소변기 앞에 서는데, 소변을 본다 고 생각하기엔 지나치게 길게 화면이 지속된다. 소변기 앞에 있는 남자 중 누구도 화장실을 나가지 않은 채 멍뚱뚱 서 있기만 한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면 앞서 누군가 나갔던 자리,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야 하는 변소의 문에 손이 하나 불쑥 튀어와 문을 다시 닫는다. 그것은 분명 유명인의 손이다. 그리고 그 순간 영화는 현실의 리얼리티와 분리된다. 화장실의 남자들은 움직일 수 없고, 아주 살짝 보이는 정체불명의 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영화임을 알리는 것이다. 영화가 마지막에 다다르면, 카메라는 스크린의 시점으로 빈 좌석을 바라본다. 빈 좌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갔던 수많은 시간이 쌓여있다. 영화가 빛으로 이루어진 매체라고 생각한다면 좌석, 아니 시간을 비추는 빛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빈 좌석을 향하는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영화관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새삼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 우리는 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일까? 이 질문은 OTT 시대뿐만 아니라, TV의 시대에도, 비디오의 시대에도 제기되었던 질문이다. 그때마다 영화는 그 파고를 힘겹게나마 잘 넘겨왔다. 그건 결국 영화관에서의 관람 행위가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억과 감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안녕, 용문객잔〉은 분명 대극장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2000년대를 지시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의 관객들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까닭은 이 공통적인 기억과 감각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예정된 노스텔지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보고 있는 영화의 감각 말이다. 그 안에는 웃음, 눈물, 가벼운 속삭임, 관람을 방해하는 기침 소리나 휴대전화 알람조차 포함한다. 그리고 영화제야말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현장일 것이다.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안녕, 용문객잔〉을 다시 상영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의 제37회 정기연주회

예술가의 생애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지난 9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는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의 제37회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199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창단되어 듀오에서 트리오 또는 챔버 오케스트라에 이르는 다양한 편성의 앙상블로 활동하며,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다루며 따뜻한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 유네스코 40주년 기념음악회, 서울 이원아트홀 초청 아티스트콘서트, 임진각 힐링 뮤직페스티벌, MBC목요음악회,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 미국 캘리포니아 실비치 Sunshine Club 초청 연주 등 다양한 공연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번 공연은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Johann Baptist Strauss II(1825~1899) 탄생 200주년과 장 시벨리우스(Johan Julius Christian Sibelius(1865~1957) 탄생 160주년을 기념하며, 두 작곡가의 대표작을 현악 오케스트라 구성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마련했다.

첫 곡은 교향시 「핀란드아」로 알려진 시벨리우스의 피아노 5중주 g 단조(J. Sibelius, Piano Quintet in g minor)였다. 1악장은 피아노의 비장한 트레몰로로 시작하여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반음계의 진행과 아울러 현악 앙상블이 오케스트라의 음향과 가까운 사운드로 묵직함을 드러냈다. 느리고 침착한 서주를 지나 저음 파트인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단단하게 지지하는 가운데 고음부 악기들이 서정적이면서 자유롭게 질주하여 서주와 대조를 이뤘다. 침통한 가운데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이끄는 2악장은 우수에 찬 바이올린에 맞서 민첩한 싱커페이션과 피치카토로 민속적인 성격이 강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삼아 풍성함을 더해갔다. 밝고 빠른 3악장에서 더욱더 고조된 핀란드 정서에 다다르며 마지막 악장을 향해 달려갔다. 4악장은 강렬하고 힘차게 밀도 높은 구조로 피아노가 받쳐주는 가운데 현악 오케스트라가 활기차게 움직이며 시벨리우스 특유의 애조 띤 진지함이 차갑고도 질푸른 북유럽의 색채가 유난히 다가왔다. 현악4중주에 피아노가 더해진 보편적인 Quintet이 아닌 바이올린 8대에 2대의 비올라와 첼로, 1대의 더블베이스로 확장된 규모 의 현 파트는 물론이고 피아노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드라마틱한 음향과 섬세함이 지휘자 없는 실내악 세계에서 모두를 감싸안아 편안하고 안정감 넘치는 가운데 입체적 조화를 보여줬다.



작곡가 이수은의 창작 위촉 작품인 「Amazing Grace with Arirang」은 가야금, 해금, 장구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Amazing Grace」와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재구성한 곡으로 CTS 퓨전 앙상블과 무지카비바가 동서양의 선율을 통해 전통과 클래식이 하나로 울리는 신비를 자아냈다.

전반부 시벨리우스의 현악 5중주인 악곡을 현악 오케스트라로 확대 편성한 무대에 이어 오스트리아의 뛰어난 작곡가 요한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와 왈츠를 현악 오케스트라로 만났다.

「안넨 폴카 Annen Polka Op.117」의 여성스런 아기자기함과 왈츠의 아버지 요한슈트라우스 1세 Johann Baptist Strauss I(1804~1849)의 「라데츠키 행진곡 Radezky March」으로 음악적 대비도 보여줬다. 다시 요한슈트라우스 2세의 역동적이고 재기발랄한 재능이 번뜩이는 「천둥과 번개 폴카 Unter Donner und Blitz Polka Op.324」와 사냥을 묘사한 듯 빠르고 기세당당한 「사냥 폴카 Auf der Jagd, Op. 373」, 오페레타 〈여왕의 레이스 손수건〉

의 주제곡인 「남국의 장미 왈츠 Rosen aus dem Süden, Op. 388」를 우아하고 빛나는 태양과 따뜻한 기운 아래 만발한 장미와 왈츠를 추는 듯 고조된 흥을 돋우며 아름답게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음악이 주는 건강한 에너지와 긍정의 진동으로 간발의 긴장감과 절묘한 호흡으로 순수한 앙상블을 만끽하게 했다. 오늘날의 클래식음악은 다양한 장르와 양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작곡 기법과 표현 방식이 등장하면서 작품들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다. 그러기에 연주자들은 작곡가의 작품 그 자체에서 기운을 받아 새로운 에너지로 소리 내고 이를 앙상블로 탄생시킨다. 한 악기 군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은 가사 없는 기악곡이기에 시작에서 클라이맥스까지 도달하는 맥락을 잘 읽어야 비로소 정화될 수 있다.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무지카비바는 오늘의 클래식음악으로 수줍게 반 발짝 앞서가려는 의지가 있어 아름다웠다.

기호와 상징으로 확장된 조형造形 세계

정광화 ‘입고출신入古出新’

글_백근영 한국화가

갤러리 아트숲에서 119번째 기획전으로, 정광화 작가의 ‘입고출신入古出新’이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작가의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작품은 물질을 쌓고 다시 갈아내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표면과 본질, 기호와 상징의 관계성에 대해서 사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흔적은 ‘형태’가 아닌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며, 회화가 지닌 물리적 경계를 초월한 조형적 사유의 공간을 형성한다. 이는 전통의 미학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작가적 시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동시대 회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시장 속 작품은 형상과 문자들이 합해져 새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조합에 의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미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려는 듯 여러 가지 색들로 중첩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다. 가까이서 보니 바탕을 이루는 이미지와 문장은 초서(草書¹⁾)의 종서(縱書)로 가득하며, 유려한 필체의 한문 문장들이다. 『반야심경』과 같은 불경 구절과 교훈적 의미를 담은 글귀가 눈에 띄며, 이것은 마치 민화의 문자도(文字圖²⁾)처럼 보이지만 그 형태와 형상은 다르다. 문장과 더불어 한가운데에 배치된 이미지들은 면과 색채 등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진 형상으로 화려함 속 고요함을 풍긴다. 인류는 예부터 가

시적인 자연의 형상을 단순화하거나 기호화하며, 이를 통하여 상형문자를 창조했다. 대상이 지닌 형태를 비롯한 색, 움직임, 구조 등 객관적 개념을 때로는 비가시적 추상적 의미까지 포함한 상형문자는 모든 대상에 대한 의미를 함축했다. 이후 인간은 고대 상형문자를 발판으로 현대사회의 언어까지 변화를 거듭하며 사회와 문화를 창조한다. 정 작가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시발점인 ‘문자’를 작품에 적용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모든 진리와 주변 존재의 본질을 ‘기호(草書)’와 ‘상징(形象)’이라는 조형적 언어로 재구성했다. 전체 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을 기반한 문자와 자연물 및 성상을 통하여 새로운 형상의 작품세계를 만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입고(入古)의 정신으로 한국 문인화의 근간인 시·서·화를 인문학적 정신으로 그리고 물성(物性)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시키고, 출신(出新)의 실천으로 조화로운 동양사상의 심오한 경지와 정신을 표현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적인 색채와 함께 서양화의 기법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점으로, 이전부터 작가는 기법적으로 붓을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회화작품은 화면에 붓을 이용하거나 뭔가를 계획적으로 그린다. 하지만 정광화는 이 같은 방식을 거부하고, 허공에 물감을 뿌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캔버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 물감을 짜면서, 손동작의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다만 물감은 자신이 특별하게 만든 것으로 아크릴이나 젯소 그리고



白鷗雙飛, 116.8×91cm, 아크릴, 혼합재료, 2025



子養悻悻, 72.7×90.9cm, 아크릴, 혼합재료, 2024

돌가루 성분 등을 혼합했다. ‘우연성’에 기인한 행위의 결과는 문장이 되기도 하고 특정 형상이 된다. 작품 제작과정 속 화면은 물감의 중첩에 따른 층위를 느끼게 하는데, 겹겹이 쌓여진 물성의 두께는 물감이 마르면 그라인드로 갈아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때 바탕은 다양한 색채 층이 올라와 화면의 깊이와 무게를 자아낸다. 그런 표면 위에 화가는 마지막에 초서 형식의 글씨와 특징 이미지를 주어 작품을 완성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문자도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작품 제작과정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과 그 흔적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밝힌다. 그에게 작업의 표면 아래 겹겹이 쌓인 형상들은 단순히 지워진 자취가 아닌 감춰진 기억의 흔적이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잠재된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정광화의 작품은 그가 지닌 철학적 사유와 다양한 기법이 결합한 총체적 결과물이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의 형상적 유무, 즉 표면에 드러난 결과에만 초점을 두

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가의 관심이 우리나라 전통의 정신적 뿌리와 근원적 가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예컨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나 〈오징어 게임〉의 흥행은 한국 문화의 잠재력과 고유한 미학적 정체성을 다시금 환기한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현상이 아닌, 한국문화의 근원적 정신과 예술적 확장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본인의 작품을 연계해 관객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시각적 관점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그의 회화는 절대 평면 위에서 우주의 무한한 원리를 지시적으로 구현하며, 동시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1 한자 서체의 종류 중 하나로 문자를 흘려서 쓴 서체다. 서역西域에서 출토된 전한前漢의 목간木簡에 필부의 파세와 리듬을 가진 속필의 문자가 있으며, 여기서 지금 초서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읽기 어렵고 작성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가능하기에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변화가 풍부하여 예술작품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2 문자도는 민화 가운데 글자의 의미와 관계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한자 획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한 그림으로, 그림글씨·꽃글씨·서화도 등으로도 불린다.

건축과 서예 XVII

범어사 원효암 무량수각

- 추사 김정희의 필획으로 되살아난 수행공간



범어사 원효암 © 문진우 사진 (2024년 촬영)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1786-1856)의 국내 연구자이자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이 한 말이다.

추사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학자이자 예술가로, 금석학과 서예, 문학과 회화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성취를 남겼다. 그의 현판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단연 '무량수각(無量壽閣)'이다.

해남 대흥사에서 원교 이광사의 <대웅보전> 글씨를 평가절하하며 대신 써 주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추사가 유배길에 쓴 해남 대흥사의 <무량수각> 현판과 제주도 유배 중에 예산 화암사에 써 보낸 <무량수각> 현판은 그의 인생 궤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유홍준은 두 글씨를 이렇게 비교했다.

같은 글자이지만 제주도로 유배 가던 길에 쓴 해남 대흥사의 무량수각 현판 글씨는 획이 대단히 기름지고 윤기가 있어 마치 '중국 음식 난자완스처럼 기름지고 자신감이 넘치며 부티와 윤기가 넘치는' 반면, 귀양살이 7년째 쓴 예산 화암사의 무량수각 현판 글씨는 '군살을 털어낸 듯한 뾰족이 느껴지고 어찌 보면 화강암의 골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예산 화암사의 현판은 추사가 제주에서 귀양살이하던 1846년, 가문의 원찰인 화암사(華嚴寺) 중창 때 예서체로 써서 보낸 작품으로 귀양생활로 변화된 추사의 글씨와 성정을 엿볼 수 있다. '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된다' '열 개의 벼루가 구멍이 났고 천 자루의 붓이 몽당뿔이 됐다' 고 추사 김정희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추사는 특히 <무량수(無量壽)>라는 개념을 즐겨 썼다. '한없이 긴 수명'이란 뜻이다. 모든 생명이 소멸을 피할 수 없지만, 부처의 법신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항상 존재하므로 그 수명이 무량하다는 불교적 사유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관악산 연주암과 예산 추사 고택의 현판에도 그가 쓴 <무량수> 현판이 남아 있다.



대웅보전
_원교 이광사, 해남 대흥사



예산 화암사 무량수각_추사 김정희, 수덕사 근역성보관 소장
(현종 12년, 1848년)



무량수_추사 김정희, 추사기념관

무량수각과 범어사 원효암

아미타불은 헤아릴 수 없는 수명과 광명을 주는 부처란 뜻으로 무량수불無量壽佛,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 부른다.

무량수각은 아미타불을 봉안하는 전각이며, 극락보전極樂寶殿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 사찰에서 같은 명칭의 전각이 확인되며,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모각하여 현판으로 현쾌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범어사 원효암, 순천 선암사 천불전, 서울 운현궁이 대표적이다.



1920년대 부산 금정구 범어사 원효암

범어사 원효암은 통일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며 현재도 참선 수행도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는 신라말 고려 초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삼층석탑 2기가 경내에 남아 있고, 원효대사가 좌선하면서 참선했다고 전하는 원효석대가 인근에 있다. 1899년부터 10여 년간 범어사 및 산내 암자에서는 수좌들이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풍의 중심 사찰이 되었는데,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1911-1913년에는 선찰대본산으로서의 위치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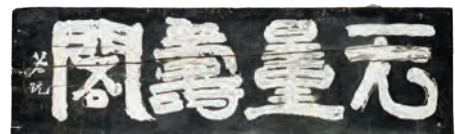
1899년 범어사 최초의 선원인 금강선사가 금강암에 개설된 이래, 1900년 안양암, 1901년 내원암, 1902년 계명암, 1905년 내원암, 1906년 원효암, 1909년 원응료와 대성암, 1910년 금어암에 선사禪社를 개설했다. 원효암은 1906년 원효선사元曉禪社가 개설된 이래 참선 수행 도량으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껏 수행하고 있는 암자이다. 범어사 원효암에는 <제일선원>과 <무량수각> 현판이 <원효암> 좌우로 나란히 걸려 있는데, 그 가운데 <무량수각>은 해남 대흥사본의 번각본이다.

1920년대 엽서에 보이는 <무량수각> 현판은 현재 범어사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2024년 촬영한 원효암 전경에 보이는 것은 최근 또다시 번각한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세대를 넘어 번각되고 재현되는 이유는 단지 '명필'이라서가 아니다. 그의 서체는 단단한 필획 속에 힘과 여백, 학문적 포부와 열정이 담겨 있다.

아마도 그가 제주도 유배 시절의 역경을 통해 길러진 내면의 고독과 절제로 겸허해지고 서체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량수각_순천 선암사 천불전



무량수각_추사 김정희, 범어사성보박물관 소장



무량수각_추사 김정희, 해남 대흥사 무량수각 편액



대평두부 대련
추사 김정희, 대구 간송미술관

많은 사찰이 무량수각의 현판을 걸 때 장식적인 의미가 아닌 추사 서체가 지닌 수행 과정과 깨달음의 상징성을 현현하려 했을 것이다. 유배의 고통을 통과하며 형성될 내면의 단련이 해남 대흥사 <무량수각> 글씨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촌 늙은이에게 제일가는 즐거움이란

추사는 두 번째 유배를 다녀온 후 아버지 김노경이 지은 별서(別墅)인 과천의 과지초당에 머물며 마지막 생을 보냈다. 현재 복원된 과지초당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추구했던 <대평고회(大烹高會) 대련> 글귀를 주련으로 제작하여 기둥에 걸어두었다. <대평고회> 대련은 추사가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다. 세상을 뜬 해인 1856년 행농(杏農) 유치옥(兪致旭)에게 써주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장 이상적인 경지라는 내용에 걸맞게 꾸밈이 없는 소박한 필법으로 완숙미를 갖춘 노老 서예가의 인생관과 예술관이 응축되어 있다.

大烹豆腐瓜薑菜 (대평두부과강채) 좋은 음식이란 두부와 오이 생강 나물
高會夫妻兒女孫 (고회부처아녀손)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딸 손자

이는 촌 늙은이에게 제일가는 즐거움이요. 으뜸가는 즐거움이 된다.
비록 허리춤에 말(馬)만큼 큰 황금인을 차고
음식이 앞에 사방 한 길이나 차려지고 시중드는 여인이
수백 명이라 하더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행농을 위해 쓴다. 칠십일과(七十一果)

영조의 사위 집안 후손으로 태어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두 차례의 유배를 겪은 뒤 김정희가 깨달은 삶의 진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평온함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무량수의 뜻처럼, 그의 필획은 도전과 고통, 고독과 사유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생명처럼 이어지고 있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



세상의窓

“태극기가 하찮은 존재? 대한민국 정체성 오롯이 담은 ‘태극기 교육’ 더 절실하다”

국기(國旗 National Flag)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공식 깃발’입니다. 그래서 국기를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 정치적 이념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유엔UN 등 국제행사에서 국기가 사용되고, 공공기관과 대사관, 학교 등에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국가마다 독립기념일이나 국경일 등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열릴 때 반드시 이 국기를 내걸고, 애국심을 표현하거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합니다. 국기는 또 색상-도형-문장(紋章-엠블럼)-비율 등의 구성요소를 갖습니다. 색상을 통해서 국가의 역사와 이념, 지리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기에는 별, 십자, 원, 삼각형, 줄무늬, 태극 등 도형이 동원되고, 국장이나 특별한 상징물인 문장과 엠블럼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3)-세로(2) 등의 비율로 제작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성조기의 경우 50개의 별(50개 주)와 13개의 줄(전국 당시 13개 식민지), 용기와 순수, 정의를 뜻하는 빨강-하양-파랑 등의 색상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기(히노마루)에는 하얀 바탕에 붉은 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떠오르는 태양’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는 190개 이상의 공식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국기는 13세기경에 만들어진 덴마크의 국기인 ‘다네브로그’이며, 네팔 국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이 아닌 두 개의 삼각형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천 년의 유구(悠久)한 역사에 빛난다는 우리의 대한
 민국, 우리 국기인 ‘태극기(太極旗[Taegeukgi, Korean Flag: The national
 flag of Korea])’의 가치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살
 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태극기를 바
 라보는 국민의 인식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술부산』 독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요즘 정
 치적 갈등 속에서 해매고 있기 때문인지 태극기가 ‘우리 모
 두의 것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상징’으로 오용된다는 우려
 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극기를 높이 들
 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외치는 국민을 매도해선
 안 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대한민
 국이 영동한 데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국민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하는 충정에서
 태극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든 자들을 ‘국뽕(국가+히로뽕)’으로 취급하면서 매도
 하는 경향을 더 걱정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수주의와 민족주의가 심하며,
 타민족에 배타적이고 자국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행위나 그
 러한 생각에 빠진 사람을 일컫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태극기를 든 자를 국뽕이라고 비꼬는 자들
 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태극기의 의미를 제대
 로 알고 그런 비난하는가?”라고요. 십중팔구 그들은 태극
 기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대한
 민국의 정체성마저 외면하려는 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극기가 ‘무엇무엇’을 가득
 담고 있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역사책에도 기록되
 어 있지만, 태극기는 조선(朝鮮) 말기의 급진 개혁파인 박영효
 (朴泳孝, 1861. 6.~1939. 9.)가 수신사(외교사절) 자격으로 일본에 가던
 중 배 안에서 태극기의 원형 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2008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사본 형태의 태극
 기 도안을 담은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박영효가 만든 태극
 기 원형 설계와 부합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태극기 설계
 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태극기의 기본
 원칙(백색 바탕-태극 문양-괘 배치 등)은 조선 후기에 문화적·철학적으로
 존재해 왔던 태극철학과 음양 사상, 팔괘 사상 등을 바
 탕에 두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태극
 기를 완전하게 도안하기까지에는 (박영효) 단독이 아닌 여
 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타당
 하다는 뜻입니다. 태극기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
 습니다. 첫 번째 <흰 바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평화와
 순수, 밝음을 뜻합니다. 전통적으로 흰색은 한국 민족을 상
 징하는 색입니다. ‘백의민족’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유래했으
 니까요. 두 번째로는 태극기 가운데 원(圓)의 형태로 자리 잡
 은 <태극 문양>입니다. 이 문양의 윗부분 빨간색의 의미는
 ‘양(陽)’의 기운을 모은 것으로, 하늘과 밝음, 남성적인 힘을 뜻
 합니다. 아랫부분의 파란색은 ‘음(陰)’을 기운을 뜻하며, 땅과
 어둠, 여성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태극 문양은 양과
 음의 두 기운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니, 태극기
 속에는 우주의 생성과 순환이라는 ‘거대한 철학’을 품고 있
 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태극기 네 귀퉁이에 각각 막대 형태
 로 배치한 ‘건(乾-감(坎)-리(離)-곤(坤)’이라는 <4괘(卦)>인데, 이는 동
 양의 철학서인 역경(易經)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왼쪽 위 건괘
 는 ‘-+-+’ 3줄이며, 하늘-동쪽-아버지-봄을 의미합니
 다. 오른쪽 위의 감괘는 짧은 막대와 긴 막대를 섞은 ‘+-+’
 3줄로, 물-북쪽-아들-겨울을 뜻합니다. 왼쪽 아래 리괘는
 ‘-++-’ 3줄이며, 불-남쪽-딸-여름을 뜻하며, 오른쪽 아래
 의 곤괘는 ‘++’ 3줄이며, 땅-남쪽-어머니-가을을 뜻합니다.

이처럼 태극기 속에는 유교와 도교, 주역의 사상이 두루

반영되어서 우주와 자연의 원리, 음양 조화, 민족의 평화적 단결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영효가 1882년에 태극기를 처음 사용한 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공식 국기'로 채택되었고, 1997년 법률(국기에 관한 법률)로써 지금처럼 정확한 비율과 색상의 태극기를 제작·계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기에 관한 법률은 태극기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통일된 형태의 국기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세로 2-가로 3의 비율이되 흰 배경(바탕), 검은 사괘이면서 중앙의 태극 문양과 주변 사괘의 배치가 균형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혼란을 막기 위해 빨강(Panton 186C), 파랑(Panton 294C) 등의 정확한 색상 표준화를 적시함으로써 태극기를 제작 생산하거나 디지털 표현을 할 때 색상 왜곡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오한 철학'을 녹여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된 태극기는 전 세계 국기 중에서 확실하게 눈에 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극기가 심오한 우주의 원리와 조화를 의미하는 음양오행 등 '철학적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 국기는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 이념,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일본 국기는 '해가 뜨는 나라'라는 의미로 흰 바탕에 붉은 해가 그려져 있고, 미국 국기(성조기)는 50개 주를 뜻하는 별 50개와 건국 당시의 식민지를 뜻하는 13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국기 오성홍기(五星紅旗)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중공 건국과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오성홍기는 중공 수립 당시, 국기 도안 공모를 통해 상하이 출신 쟁롄쑹(曾聯松)이 제출해 채택된 작품으로, 공산주의 국가임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오성홍기 안의 큰 별은 공산당이고 작은 별은 인민 4계층이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빨간 바탕에 노란 별은 시각적으로 강렬하면서도 공산주의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쟁롄쑹

이 당초 제출한 국기 원안에는 공산주의의 상징인 낫과 망치가 큰 별 안에 들어가 있었으나 최종 채택 시 이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공산 국가의 태두였던 옛 소련의 국기에는 빨간색 바탕에 낫과 망치, 별이 들어가 공산주의 노동자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러시아 연방 국기는 흰색-파란색-빨간색의 가로 삼색기로 낫과 망치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이지만 70여 년이 넘도록 '우리'와 격렬히 맞서고 있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기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국기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앙 붉은색 부분은 혁명과 사회주의를 뜻하며, 하얀색 원과 붉은 오각별은 공산주의와 노동당의 영도를, 이 중에서 붉은 오각별은 공산주의와 인민의 단결, 당과 지도자 중심 사상을 뜻합니다. 북한도 해방 이후엔 잠시 태극기를 사용했었지만, 소련 군정 하에서의 입김이 작용해 붉은색과 별을 중심으로 한 국기가 구상되었고, 1948년 9월 북한 헌법 제정과 함께 공식 국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는 종교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32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사우디 국기는 이슬람교에서 천국과 예언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성한 색으로 받아들여지는 녹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기의 중앙에 아랍어 문장인 "알라 외에는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고 명시한 아랍어 문장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슬람의 신앙 고백인 '사하다(Shahada)'로, 이슬람교도 들에게 극도로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는 섬뜩할 수도 있는 '선언'을 국기에까지 담은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우디 국기는 절대로 뒤집히거나 반대로 걸릴 수 없으며, 양면 같은 방향으로 제작되어서 여타 국기처럼 좌우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 아랫부분에 그려진 '검(칼·사브르)'은 정의와 힘,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수호, 국가를 위한 무력행사 정당화 등을 뜻합니다. 검은 문장보다 아래에 있고, 검의 날이 항상 깃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 문맥에서의 존중과 질서를 반영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의 각 국가는 저마다 국가와 민족의 특성을 반영한 상징성을 다양하게 담고 있으며, 각 국가 정부와 세계인들은 자신의 국가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서 길러준 토대였고, 자신은 물론 후손 대대로 영원히 살아갈 땅인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자신을 낳아준 모국(母國)을 오매불망 잊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2025년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을 일으킨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Maggi Kang·여성) 감독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뱃속 깊이 잠자고 있던 한국인의 정서를 <케데헌>에 녹여냄으로써 모국에 큰 선물을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상징하는 '요체(要體)'입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존중하며, 지극히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상이 태극기인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태극기의 가치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와 우주의 '큰 질서'를 멋지고 맛깔스러우며 체계적으로 잘 담고 있는 우리의 태극기를 우리가 외면한다? 그것은 소중한 나의 것, 우리 것을 부정(否定)하는 망나니짓일 뿐입니다. 태극기는 우리에게겐 희망의 상징이지만, 전 세계인이 더불어 누릴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일제(日制) 탄압에 분노한 만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을 외치고 외칠 때 들었던 것이 태극기였습니다. 36년간 나라 잃은 설움

을 딛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서 독립 쟁취에 대한 '결기(決氣)'를 다질 때도 태극기를 앞세웠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온 국민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도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연승을 거두다 4강까지 올랐을 때도, 사이의 「강남스타일」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나마이트(Dynamite, 2020)」와 「Boy With Luv(2019)」 등이 세계 대중음악계를 휩쓸 때도 꼭 등장했던 것이 태극기였습니다. 이처럼 태극기는 철학을 넘어 K-팝 등 'K-컬처'까지 한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는 데 선두 마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태극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연이은 정권 교체 속에서 태극기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상징'이 되면서 '엉뚱한 볼품'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특정 부류의 집단들은 행사 시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치적으로 오염된 태극기 사용을 꺼리는 것이 중립적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부류까지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그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유치원,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 때까지 더 철저히 '태극기 교육'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태극기는 철학적 깊이, 역사적 무게, 통합적인 가능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오롯이 담은 상징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각에 가두어 태극기를 외면하기보다 제대로 알아서 소중한 존재로 품는 태세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번영할 대한민국을 위해선 '태극기 제대로 알고 아끼는 운동'이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글_심수화 저널리스트·언론인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이인권 - 귀국선



— 제3화 —

「귀국선」과 도떼기시장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출시된 이인권의 「귀국선」 음반 표지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왕 히로히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조선이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강제 동원되었던가? 이제부터 부산항은 일제로 인해 더 이상 '울며 헤진 부산항'이 아니었다. 제1부두에서 울려 퍼지던 구슬픈 뱃고동소리는 한순간에 환희에 찬 뱃고동 소리로 변했고, 눈물로 떠난 부산항은 이전 기쁨으로 가득 찬 항만이 되었다. 그 전날 '지옥선'과 같았던 관부연락선은 환희에 찬 '귀국선'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 「귀국선」 가사 1절

가요 「귀국선」은 부산항 입구에서 당시 동포들의 귀국하는 모습을 그린 노래다. 광복절 노래가사에서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고 한 것처럼 「귀국선」 가사에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며 의인법을 구사하면서 온 만물과 함께 기쁨에 가득 찬 표현을 하고 있다. 가사는 손로원이 직접 부딪가를 찾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썼다. 그는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맞는 아름다운 노랫말인 「봄날은 간다」를 쓴 시인이자 화가로서 해방과 6.25전쟁 이후 부산에서 생활하며 많은 노랫말을 남긴 작사가로 유명하다. 작곡은 조선의 슈베르트로 통하는

귀환동포들은 대부분 연락선을 이용했으나 일부는 일반 선박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국립강제동원역사관)

경남 진주 출신의 이재호가 맡았다. 노래는 이인권이 불러 히트를 쳤다. 본래 이 노래는 해방 이후인 1947년 9월 대구에 있는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이인권이 취입했다. 그러나 당시 녹음 기술 등의 문제로 첫 음반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이걸 취입하려고 이인권을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그때 대타로 나선 가수가 「전선야곡」으로 유명한 부산 동래 출신의 신세영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해방을 하고 6년이 지난 1952년, 그것도 6·25전쟁 중에 이인권이 다시 취입해서 크게 인기를 얻었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곡이 되레 암울한 전쟁 중에 히트를 쳤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분의 2박자로 된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트로트 리듬이 전쟁으로 지친 국민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주는 데 그만이었던 걸까? 마치 시원한 청량음료를 들이키는 것처럼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이 노래가 제격이었던 셈이다.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귀국선」을 제때 부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격변기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면 해방을 맞아 부산은 어떠한 분위기에 휩싸였을까? 한마디로 양 민족의 귀환 동포로서 역사적인 중심에 선 도시였다. 한꺼번에 귀환자들이 몰려들다 보니 대혼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 양국은 연합국군최고사령부(SCAP)의 통제와 협조 아래 사전 예방에 주력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조선해외전재(戰災)동포구제회’ 등이 결성하여 도쿄와 시모노세키에 원호단을 파견하거나 귀국선에 승선하여 의료 활동을 펼쳤다. 동포들을 태운 귀국선이 부산항 1부두에 접안하면 곧 하선 명령이 내려지고, 벽찬 감정을 억누르며 그토록 그리던 조국 땅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부산세관을 지나 곁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 모여 휴식을 취하다 열차를 타고 각각 고향으로 향했다. 호사다마란 옛말처럼 해방의 기쁨 뒤엔 아픔의 불청객도 뒤따라왔다. 콜레라라는 괴질이였다. 먼저 콜레라 소동은 부산에서 시



작되었다. 1946년 5월에는 30세가량의 한 귀환노동자가 콜레라에 걸려 부산 지역에 5,000여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었고, 이 중 1,100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괴질의 전파는 4월 말 중국 남부에서 귀환하는 동포 3,150명을 실은 수송선이 부산항의 입항 부터였다. 이미 배 안에서 콜레라와 파라티푸스가 발생해 미군 방역부의 격리 소독을 받느라고 1주일째 상륙을 못하고 있었다. 선내에는 콜레라가 창궐해 2명이 사망하자, 미군은 시체를 영도 바닷가에 수장했다고 한다. 이게 인근 마을로 콜레라를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군정의 방역부에서 소독했지만 허술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그해 부산에서는 하룻밤에 80명씩 콜레라로 목숨을 잃는 계기가 되었다. 그해 5월에는 상하이에서 귀환 동포를 태운 배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이 배의 선원이 콜레라로 사망하자, 군정 당국은 5월 말부터 부산항을 금지시키고 인천항과 군산항을 귀환장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대전과 인천 등지로 콜레라가 퍼져나가 전국이 콜레라공포증에 발려들고 말았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미 육군부에 제출한 ‘6월 월례 보고서’에서 “6월 중에 보고된 호열자 환자 수는 1,212명인데, 그중 651명은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의 정치고문이던 레너



1946년 부산항에 도착한 귀환동포들이 미군의 안내를 받으며 배에서 내리고 있다.(미국 국립문서기록청)



귀환동포들이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 부산역 광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부산세관박물관)

드 버치(Leonard Bertsch) 중위는 7월 13일 “콜레라로 5,500명 사망”했다는 메모를 남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항은 해방을 맞아 귀환동포들의 입국장임과 동시에 콜레라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귀환자 전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일본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한반도로 귀환한 조선인은 약 94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주로 후쿠오카 곁에 있는 하카타항과 야마구치현의 센자키항에서 거의 80%가 이 두 항구에서 출발했다. 나머지 20%는 하코다테와 사세보 등 16개 지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¹⁾ 그러나 일본 내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1944년 말 일본에 체류·거주 중인 조선인은 약 194만 명이었고, 1947년 9월에는 53만 명이 남아있다고 한 걸 보면 약 140만 명이 귀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관부연락선의 주 항구인 시모노세키는 미군의 어뢰부설로 인해 항만이 폐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귀환동포들의 출발지가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다양한 항구에서 귀환을 서둘러야만 했다. 귀환 동포들이 타고 온 귀환선박은 대부분 관부연락선이었다. 승객정원이 6,500명인 흥안환은 40회, 2,600명의 덕수환은 32회 운

항을 했다. 관부연락선이 아닌 운선환, 간궁환 등 총 19척이 273회 걸쳐 대한해협을 오가면 양국 국민의 귀환 조치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귀환선 외에도 미확인 선박이 114척이나 되고, 203차례나 운항한 것으로 되어 있다.²⁾ 관부연락선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정원의 3~4배 이상을 태워 들어오기도 했다. 정해진 귀환선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운송하려면 그러한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귀환하는 과정에서 ‘우키시마호 침몰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가슴 아픈 대참사였다. 1945년 8월 22일, 홋카이도의 일본 해군은 오미나토항 인근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본 해군에서 징발한 4,740톤급 화물선 우키시마호(浮島丸)에 태워 부산항을 향해 출항시켰다. 그러나 우키시마호는 항해 도중 방향을 돌려 일본 마이즈루항으로 향하였고, 8월 24일에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폭발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조선인 승선자 3,725명 중 사망 524명, 실종 수천 명으로 집계되었고, 폭발의 원인을 두고 일본인 장교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는 한국 측 주장과 마이즈루만 내에 부설했던 미군의 기뢰와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일본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희생자 추모조형물로서는 부산시 중앙동 수



우리나라 최초 공설시장으로 개설된 1920년 초 부평정시장 모습(부산근대사료연구소)

미르공원 내에 희생자 위령비를 2005년에 설치하였고, 일본에는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해안 근처의 섬에 ‘순난의 비’가 세워져 있다.

우리 동포들이 빨리 조국을 찾아오고 싶은 만큼이나, 패망한 일본인도 이에 못지않았다. 식민통치자들을 비롯해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흑시나 있을 보복이 두려워졌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조급했다. 당시 일본 후생성의 귀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46년 말까지 조선과 만주에서 거주한 일본인은 약 100만 명이였다. 대부분 조선인 귀환자를 신고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 편으로 귀환하였고, 이들은 조국이 패망된 데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실의에 찬 모습이었다.

더구나 일본인들이 약간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귀환 조치가 뒤따라야 했다. 이를 위해 1945년 9월 1일 세화회(世話會)라는 자체모임을 결성하여 자국민이 귀환하는 데 필요한 편의와 수속절차를 적시에 도와주어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게 귀국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휴대한 짐의 규제였다. 특히 고리짝 짐이 넘쳐나서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이 승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본인들은 처음엔 부둣가 근처에서

고리짝을 팔아 현금화하기 시작했고, 뒤에는 사람이 몰려들자 지금의 부평시장 쪽소개지(疏開地³⁾)로 옮겨 그곳에 거대한 ‘고리짝 중고시장’을 형성하였다. 곧이어 귀환 동포들까지도 이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몰려들어 애지중지 가지고 온 물건을 헐값으로 내다 팔아 노자를 마련하기에 급급했다. 때로는 이러한 값싼 물건을 두고 서로 사려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걸 ‘도떼기시장’이라 불렀다. 오늘날 국제시장의 모체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부산항에서 귀환자와 콜레라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양 민족이 오가면서 보복과 같은 충돌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사실은 일본은 패망국가 이면서도 이러한 보복이 두려워서 끝까지 군장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광복 이튿날인 1945년 8월 16일, 서울에서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안재홍 씨가 서울 중앙방송을 통해 국민의 협조를 바라는 특별 방송을 하였다. “현재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조선에서 떠나는 1백수십만 명의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양 국민이 무사히 오갈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송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이처럼 광복을 맞아 부산은 양 민족에게 희비가 엇갈린 무사 귀환의 통로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특히 우리 동포들이 타고 들어온 귀국선의 입항을 통해 기쁨과 희망이 넘친 자유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문이었다.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1 森田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状」, 法務報告書 第43集 3号, 1955. 10, P.67

2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한일민족문제연구』 11집(2006. 12)

3 1945년 8월 1일 밤, 부산 수정동의 일본 육군관사(미 B29의 폭격으로 일본군 소령 등 15명이 폭사사태가 발생했다. 당황한 일본군 부산요새사령부는 추가 공습에 대비하여 도심의 주거 밀집지역을 소개지로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지금의 국제시장 일대로서 도로를 따라 철거를 단행하여 빈터가 되었고, 뒤에 사람들은 이곳을 소까이(疏開町)라 불렀다.

부산예총, 풍피두센터 부산 건립 지지 선언

2025. 10. 16.(목)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예총)는 10월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풍피두센터 부산 건립'을 적극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을 비롯해 김인숙 수석부회장, 김두진 부회장(부산건축가회 회장), 권성은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조성범 감사, 강명옥(부산국악협회 회장), 남선주(부산무용협회 회장), 박혜숙(부산문인협회 회장), 최장락(부산미술협회 회장) 등 임원진과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예총은 풍피두센터 부산이 단순한 미술관 건립을 넘어, 부산이 아시아 예술의 허브로 도약하는 문화도시의 상징적 프로젝트이며, 세계적인 예술기관인 풍피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이 예술 교류와 창조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피두센터 부산이 예술인과 시민, 청년세대가 함께 창작하고 배우며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지 선언문에는 ▶부산이 글로벌문화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풍피두센터 부산' 건립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풍피두센터 부산' 건립을 위해 예술인의 창의와 역량을 모아 추진과 운영 과정에 적극 협력한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풍피두센터 부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널리 알린다 ▶'풍피두센터 부산'이 지역 예술인과 세계 예술을 잇는 공존과 상생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모든 예술적·인적 자원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예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풍피두센터 부산 유치는 부산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예술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세대적 투자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부산이 세계 예술의 중심 무대로 도약하는 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예총 제6차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개최

2025. 9. 16.(화) ~ 17.(수) 이수도

부산예총은 9월 16일부터 이틀간 이수도에서 '제6차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열어 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조직 활성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사회에는 오수연 회장, 김인숙 수석부회장, 김두진 부회장(부산건축가회 회장), 권성은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윤종국 감사, 강명옥(부산국악협회 회장), 남선주(부산무용협회 회장), 박혜숙(부산문인협회 회장), 최장락(부산미술협회 회장), 강종관(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안규성(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 최정애(부산꽃예술작가 회장) 총 12명이 참석했다.

제5차 이사회 회의결과로 ▶부산예술회관 기획 '제14회 젊음의 축제' 결산보고 승인의 건 ▶부산예총 기획 '제63회 부산예술제' 예산(안) 승인의 건 ▶부산예술회관 기획 '예술의 흔적' 예산(안) 승인의 건을 보고하고, 보고사항으로는 ▶부산예총 기획 '제63회 부산예술제' 진행 보고 ▶부산예총 부회장(임원) 변경 보고를 진행했다.

제6차 이사회 안건으로는 ▶부산예총 기획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결산 보고 승인의 건 ▶부산예총 기획 '2025 부산예총 갈매랑 축제'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5 전국체전연계 부산아트빌리지 '흥축제' 예산(안) 승인의 건 ▶부산예술회관 기획 '2025 굿바이송년' 변경(안) 승인의 건 ▶부산예술회관 기획 '시각예술분야 전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 통과됐다. 기타 사항으로는 '흥축제'(영화의전당, 부산콘서트홀) 참석 인원 홍보 및 체험 버스 배정, '부산예술제'(개막식 및 시상식) 참석 인원 확인 등이 논의됐다.



부산예총, 센텀종합병원과 협력 MOU 체결

2025. 9. 12.(금) 센텀종합병원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이 지난 9월 12일에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항으로는 ▲센텀종합병원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원에 대한 맞춤형 종합검진 및 진료 편의 제공 ▲지역사회 보건 사업 및 예술문화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의료 정보 제공 및 건강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협력

▲양 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하여 상호 홍보 활동과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협약의 취지와 부합되는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보의 상호 교환 및 상호 발전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예술문화 활성화와 문화 융성을 목표로 양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정합니다>

예술부산 2025년 10월호(vol.244) 예서제사의 <기억해야 할 미래II-그날의 함성, 영웅> 관련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억해야 할 미래II-그날의 함성, 영웅>은 '기억해야 할 미래' 연작 시리즈의 두 번째 공연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그날의 함성에서는 국극 무대인 <그날의 이야기>를 선보였으며, 「거문고 독주를 위한 '버닝Burning」과 김백천 작곡의 「순국의 혼」이 연주되었습니다.

제2장 그날을 기억하며는 황호준 작곡 「새야새야 주제에 의한 바르도Bardo」로, 죽음 이후 환생하기까지 머무는 중간 상태를 국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제3장 당신을 기억합니다는 세상을 구한 영웅이 아닌 가족 형제·벗 등 타인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우리의 이웃을 조명한 내용으로, 전우실 작곡 「영웅을 위하여」가 연주되었습니다.

제4장 기억해야 할 미래는 「아리랑 환상곡」 「올드랭 사인Auld Lang Syne」, 안익태 작곡 「애국가」로 구성해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독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취재와 교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정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네바움
11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3일에는 개념예술가 이명기가 '형식에서 벗어나기: 설치와 개념의 실험정신'으로 찾아온다. 10일에는 김영진 대구대학교 창조융합학부 교수가 '픽셀아트와 과정 철학: 디지털 시대의 공존법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에서 예술의 생존법을 알려 준다. 1일과 8일에는 각각 복천동 금목 서가와 보수동 대영서점에서 '마을 책집 나들이'가 진행된다. '시네바움 스크리닝'으로는 17일 오후 7시에 김지환 감독의 <물 위의 음표>와 <해변의 발견>을 상영한다. 24일에는 박진용 감독의 <평화>를 상영한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와 마지막 목요일 오후 5시에 하는 '하이쿠 산책' 또한 준비되어 있다.

문의 010-2774-3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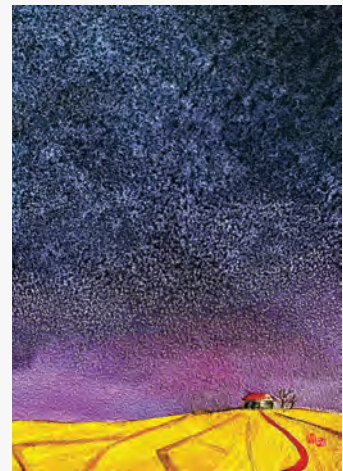


**제30회 금샘예술축제
금샘열린음악회**

**11. 1.(토)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은빛홀**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이번 음악회는 음악감독 이현우와 [에테르나 앙상블]이 함께 꾸미는 품격 있는 실내악의 향연으로, 지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소프라노 박은주와 이민희, 테너 김충희, 바리톤 이득수 등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오페라 아리아와 창작곡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또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앙상블 무대를 통해 거슈윈, 드보르자크 등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명곡을 선보인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음악의 울림 속에서 따스한 여운을 느껴 보길 바란다.

문의 051)519-4062



**서담 개인전
다섯 개의 소원을
하늘에 걸었다**

**11. 1.(토) ~ 13.(목)
갤러리 씬**

국악인에서 시각예술가로, 그리고 기획자로 변신한 서담(본명 서현인)이 개인전 '다섯 개의 소원을 하늘에 걸었다'를 선보인다. 해금을 전공하고 공연기획자로 활동해 온 그는 이번 전시에서 그림과 글, 국악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시도한다. 작품에는 국악 특유의 장단과 리듬이 흐르며, 따뜻한 색채와 감성적인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특히 11월 7일에는 해금·피리가야금·거문고·타악 등과 함께하는 갤러리 연주회 <K-비긴어게인>이 열려, 음악과 미술이 한 공간에서 공명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010-2396-0540



**정금희 개인전
화락이토 花落以土**

11. 1.(토) ~ 15.(토)
부산갤러리

사진가 정금희가 13년간의 기록과 사유를 담은 사진집 『화락이토 花落以土』 출간을 기념해 동명의 전시를 연다. ‘꽃이 떨어져 흙이 된다’는 뜻의 화락이토는 불교의 유심론과 4원소론을 바탕으로 생명의 순환과 윤회의 이치를 탐구한 작업이다. 티베트, 신장, 칭하이 등지에서 만난 순례자와 승려, 아이들과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대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생명의 질서를 담아냈다. 사진은 소멸과 탄생이 공존하는 삶의 본질을 고요하게 비추며, 인간 존재의 근원을 사유하게 한다. 전시 첫날 오후 4시에는 작가의 현장 경험과 사진집 제작기를 나누는 북토크도 마련된다.

문의 010-7280-2456



루시드드림

11. 13.(목) ~ 18.(화)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4시
소극장 6번출구

[극단 액터스]가 연극 <루시드드림>을 선보인다. 차근호 작가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인간 내면의 선과 악, 선택과 책임을 탐구한다. 2010년 초연 당시 치밀한 구성과 밀도 높은 서사로 주목받았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극단 액터스의 대표이자 연출을 맡은 손병태의 감각적 해석과 배우들의 섬세한 심리 표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 현실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서사 속에서 관객은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고, 잊고 있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몰입하다 보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문의 010-3577-3092



**알렉산더 에크만 <해머>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11. 21.(금) ~ 22.(토)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스웨덴을 대표하는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신작 <해머>가 [에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의 무대로 부산을 찾는다. 자아도취적인 온라인 세계와 현실 속 이타적인 관계를 대비시키며, 유머와 감동이 공존하는 독창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시각적 충격과 실험적인 움직임,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군무가 어우러져 현대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펼친다. 38명의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리듬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집단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음악·조명·의상의 완벽한 조화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힘찬 군집의 움직임이 예술로 피어나는 찬란한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

문의 051)607-6000



**극단 판플
전국으로 배달해드립니다**

**11. 22.(토) ~ 23.(일)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극단 판플]의 음악극 <전국으로 배달해드립니다>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2025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 선정작'으로, 지난해 초연 당시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음악과 마술, 서커스, 연극이 어우러진 이번 무대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예술공연이다. 초겨울, 해체 위기의 서커스단 단원들이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찾아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서사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예술의 힘을 느껴보길 바란다.

문의 010-2654-4880



**크리스토프 로넬 초대전
The Art of Giving**

**10. 29.(수) ~ 11. 29.(토)
갤러리 인터페이스**

프랑스 작가 크리스토프 로넬은 여행과 만남을 통해 형성된 '타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아프리카-인도-아시아 등에서의 경험을 화려하고 상징적인 화면으로 풀어낸다. 그의 작품 속 인물과 동물, 도시의 풍경은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환상적 공간을 이루며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의 장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초대전을 넘어, 작품 판매 수익 일부를 부산 지역 청년작가 지원에 기부하는 '나눔의 예술'로 기획되었다. 예술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이번 전시는, 문화가 이어지고 마음이 연결되는 아름다운 사례가 될 것이다.

문의 0507-1392-7105



**2025년 교류기획전
거장의 비밀 : 셰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학과 예술**

**9. 30.(화) ~ 2026. 1. 18.(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부산박물관이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과 협력하여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교류기획전 '거장의 비밀: 셰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학과 예술'을 연다. 이번 전시는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아서 코난 도일, J.K. 롤링 등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 78인의 초상화와 미공개 친필 원고, 편지, 희귀 초판본 등 137점을 선보인다. 작품에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사유와 감정, 그리고 창작의 고뇌가 오롯이 담겨 있다. 책 속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작가들의 흔적을 눈앞에서 만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문학과 예술이 이어온 500년의 시간을 함께 거닐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문의 051)610-7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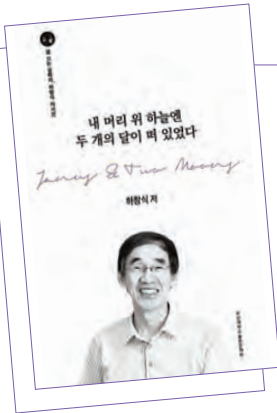
열차, 꿈을 날다 강명호 / 예인문화사

2017년 『한맥문학』으로 등단한 강명호 시인은 2023년 『부산시조』를 통해 시조 창작에 다시 뛰어들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시조집 『열차, 꿈을 날다』에는 고향 통영의 바다와 섬, 유년의 기억과 일상의 단상, 사람과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표제작 「열차, 꿈을 날다」 속 ‘아무리 그래 봤자 자존심이 있는데/똥 떼고 머리 떼고 뼈까지 발라내도/덩치 큰 대왕고래에게 시집가고 싶다(「열차, 꿈을 날다」, 부분)는 대목처럼, 유쾌하고 발랄한 상상력이 시 곳곳을 유평한다. 시인은 바다 풍경을 삶의 은유로 풀어내며 존재의 깊이를 정갈한 언어로 써 내려간다. 짧은 형식 속에 깊은 여운을 담아내는 시조의 미학이 잘 드러난다.



낙동강, 그 맑은 차정연 / 도서출판 해암

‘제29회 한국해양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차정연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어머니의 돌탑』, 『길의 여백』에 이은 이번 시집에는 자연과 사람, 서로 다른 대상을 ‘생명’이라는 공통분모로 바라보며 기묘한 풍경들이 담겨 있다. 표제작 「낙동강, 그 맑은」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발목 깊이 쓸어 담아/휘어진 어깨로 유유히 살을 석고/춤을 추듯 흘러내리는/푸른 물줄기./늘 한 몸으로 달린다(「낙동강, 그 맑은」, 부분)는 구절처럼, 강물의 이미지를 섬세하고도 유려하게 포착한다. 시인은 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물길처럼, 조용하지만 힘 있는 언어로 세계를 기록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시편들은 시인이 지나온 시간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내 머리 위 하늘엔 두 개의 달이 떠 있었다 하창식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KAIST 출신 공학자이자 수필가로 활동해 온 하창식 교수의 자서전이다. 저자는 과학 기술계와 문학예술계,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든 삶의 여정을 ‘두 개의 달’로 비유하며, 공학자의 이성과 수필가의 감성이 한 인간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를 되짚는다. 하나는 논리와 분석의 세계를 밝히는 공학의 달이고, 다른 하나는 감성과 사유의 문장을 비추는 문학의 달이다.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야누스의 달’을 통해 자아의 성장 과정을 서술하고,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공학자와 수필가로서의 여정을 풀어낸다. 4부에서는 공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후 ‘예술의 융합’을 향한 새로운 길 위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반추한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원)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500,000
- ~~· 표4 (뒷표지) 마감!~~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 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예술로 쌓아온 58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8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Busan Fireworks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Comedy Festival



Busan Rock Festival



Busan Biennale

정가 5,000원



ISSN 1976-9741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